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존스쿨 리포트

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자 특성 및 교육 효과성 분석

2007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469-01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존스쿨 리포트

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자 특성 및 교육 효과성 분석

2007



I	총 론	9
	1. 존스쿨 프로그램 분석의 목적	9
	2. 접수 및 교육인원 추세분석	10
II	자료의 수집	12
	1. 자료수집 대상	12
	2. 설문지의 구성	13
	가. 사전 설문지	13
	나. 사후 설문지	13
	3. 분석의 틀	13
	4. 분석 방법	13
III	성구매자의 개인특성 및 성 인식 분석	14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4
	가. 연령	14
	나. 혼인 형태	15
	다. 종교	16
	라. 학력	17
	마. 월평균 총수입	18
	바. 가정의 생활수준	19
	사. 직업	20
	아. 흡연과 음주	22
	자. 금지약물 남용 경험	26
	차. 범죄경력	26
	카. 배우자 및 애인에 대한 애착 정도	27
	타. 최근 가족과 별거 기간	27
	2. 자아 특성 및 대인관계 능력	28
	가. 자아통제력 및 충동성	29
	나. 대인관계 주도력	30
	다. 스트레스 조절 능력	31
	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 및 공감성	32
	마. 음주 습관 및 알코올 의존도	33
	바. 성적 행태와 성중독 위험도	34
	3. 성정체성 및 성역할에 대한 인지도	36
	가. 지배적 남성 성 및 성적 편견	36

	나. 성역할 인지 및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38 다. 순종적·전통적 여성 성 인지도 39 라. 남성 성에 대한 자기평가 40 마. 성별에 대한 자기 만족도 41	
IV	성구매자의 법의식 수준 및 폭력허용도 분석 ——— 42	
	1. 법위반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42 2. 성적폭력 신뢰도 44 3. 폭력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45 4. 가정 및 학교폭력 허용도 46	
V	성구매자의 성매매 경험 분석 ——— 47	
	1. 성구매 경험 47 가. 성구매 총 횟수 47 나. 최초 성구매 시점 48 다. 최초 성구매의 계기 49 라. 성구매 경험 경로 50 마. 성구매 경로 순위 51 바. 성구매의 주된 계기 52 사. 성구매의 댓가 지불 53 아. 성구매 주요 시간대 54 2. 성병감염 및 성관계시의 특성 55 가. 성병감염 경험 55 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시 콘돔 사용 56 다.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직후 느낌 57 3.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관련..... 58 가.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인지 여부 58 나.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행동 변화 58 다.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이유 60 라. 성매매처벌법 제정 후 성구매 경로별 이용률 및 평균 빈도 61 4. 본 성구매 사건 관련 62 가. 성구매 경로 62 나. 성구매 당시 음주 여부 63 다. 성구매 당시 동반인원 64 라. 성구매시로부터 경찰 적발시점까지의 기간 65	

VI	존스쿨(JOHN-SCHOOL)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66
	1.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66 가. 성매매 필요성 인지도 변화 66 나. 성매매 해악성 인지도 변화 68 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발성 인지도 변화 69 라.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 인지도 변화 70 2.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 변화 71 3.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 변화 72 4.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변화 73 5. 성매매의 위험성 및 손실 인지도 변화 74 가. 성매매의 위험성 인지도 변화 74 나. 성매매로 인한 손실 인지도 변화 75 6. 성문제의 자각 및 책임 수용도 변화 76 가. 성문제 인지도 변화 76 나.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변화 77 다.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 변화 77 라. 본 처분에 대한 적절성 인식 변화 78
VII	존스쿨 실시기관별 프로그램 비교 평가 분석 — 79
	1.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강사의 선정 79 가. 프로그램의 구성 79 나. 강사의 선정 79 2. 기관별 프로그램 평가 79 가. 기관별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80 나. 기관별 프로그램의 진행 평가 81 다. 기관별 프로그램의 강사 평가 83 라. 기관별 프로그램의 주제 평가 85 마. 기관별 프로그램의 유익성 평가 88 3.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개선 방안 89 가.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친구나 동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89 나. 소감 및 개선 방안 89
VIII	결론 및 제언 — 91

그림 목차

[그림 1-1] 2006년 존스쿨 접수 및 수료 현황	11
-------------------------------------	----

표 목차

〈표 1-1〉 2006년 성구매자 접수 및 존스쿨 교육수료 현황	10
〈표 2-1〉 2006년 기관별 설문지 추출 및 분석 건수	12
〈표 3-1〉 연령 분포	14
〈표 3-2〉 혼인 형태 분포	15
〈표 3-3〉 종교 유무 분포	16
〈표 3-4〉 종교모임 정기참석 여부 분포	17
〈표 3-5〉 학력 분포	17
〈표 3-6〉 월평균 총수입 분포	18
〈표 3-7〉 가정의 생활수준 분포	19
〈표 3-8〉 직업 유형 분포	20
〈표 3-9〉 직장 내 지위 분포	21
〈표 3-10〉 흡연(음주)시작 연령 분포	22
〈표 3-11〉 최근 1년 간 하루 흡연량 분포	23
〈표 3-12〉 최근 1년 간 음주 빈도 분포	24
〈표 3-13〉 최근 1년 간 1회 평균 음주량 분포	25
〈표 3-14〉 금지약물 남용 경험 분포	26
〈표 3-15〉 범죄경력 분포	26
〈표 3-16〉 배우자 및 연인에 대한 애착 정도 분포	27
〈표 3-17〉 최근 1년 간 가족과 별거 기간 분포	28
〈표 3-18〉 자아통제력 및 충동성 분포	29
〈표 3-19〉 대인관계 주도력 분포	30
〈표 3-20〉 스트레스 조절 능력 분포	31
〈표 3-21〉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 및 공감성 분포	32
〈표 3-22〉 음주 습관 및 알코올 의존도 분포	33
〈표 3-23〉 성적 행태와 성중독 위험도 분포	34
〈표 3-24〉 지배적 남성성 및 성적 편견 분포	37
〈표 3-25〉 성역할 인지 및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분포	38

〈표 3-26〉 순종적·전통적 여성 성 인지도 분포	39
〈표 3-27〉 남성성에 대한 자기평가 분포	40
〈표 3-28〉 성별에 대한 자기만족도 분포	41
〈표 4-1〉 법 위반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분포	43
〈표 4-2〉 성적폭력 신뢰도 분포	44
〈표 4-3〉 폭력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분포	45
〈표 4-4〉 가정 및 학교폭력 허용도 분포	46
〈표 5-1〉 성구매 총 횟수 분포	47
〈표 5-2〉 최초 성구매 시점 분포	48
〈표 5-3〉 최초 성구매 계기 분포	49
〈표 5-4〉 성구매 경험 경로 분포	50
〈표 5-5〉 성구매 경로 순위 분포	51
〈표 5-6〉 성구매의 주된 계기 분포	52
〈표 5-7〉 성구매의 댓가 지불 분포	53
〈표 5-8〉 성구매 주요 시간대 분포	54
〈표 5-9〉 성병감염 경험 분포	55
〈표 5-10〉 성관계시 콘돔 사용 분포	56
〈표 5-11〉 성관계 직후의 느낌 분포	57
〈표 5-12〉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인지 여부 분포	58
〈표 5-13〉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행동 변화 분포	59
〈표 5-14〉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이유 분포	60
〈표 5-15〉 성매매처벌법 제정 후 성구매 경로별 이용률 및 평균빈도 분포.....	61
〈표 5-16〉 성구매 경로 분포	62
〈표 5-17〉 성구매 당시 음주 여부 분포	63
〈표 5-18〉 성구매 당시 동반인원 분포	64
〈표 5-19〉 성구매시로부터 경찰 적발 시점까지의 기간 분포	65
〈표 6-1〉 성매매 필요성 인지도 변화	67
〈표 6-2〉 성매매 해악성 인지도 변화	68
〈표 6-3〉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발성 인지도 변화	69
〈표 6-4〉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 인지도 변화	70
〈표 6-5〉 성매매 및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 변화	71
〈표 6-6〉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 변화	72

〈표 6-7〉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변화	73
〈표 6-8〉	성매매의 위험성 인지도 변화	74
〈표 6-9〉	성매매로 인한 손실 인지도 변화	75
〈표 6-10〉	성문제 인지도 변화	76
〈표 6-11〉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변화	77
〈표 6-12〉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 변화	78
〈표 6-13〉	본 처분에 대한 적절성 인식 변화	78
〈표 7-1〉	기관별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80
〈표 7-2〉	기관별 프로그램의 진행 평가	82
〈표 7-3〉	기관별 프로그램의 강사 평가	84
〈표 7-4〉	기관별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	86
〈표 7-5〉	기관별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주제	87
〈표 7-6〉	기관별 프로그램의 유익성 평가	88
〈표 7-7〉	기관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개선 방안	90

I 총론

1. 존스쿨 프로그램 분석의 목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성매매 처벌법)이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의 시행 취지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성매매 행위 등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고, 성매매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가적 차원의 성매매 근절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성구매자 및 성판매자에 대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그릇된 성의식을 전환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2005년 7월 마련된 대검찰청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에서는 ‘검찰은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구매자이고 초범인 경우, 성구매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교육 프로그램(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처벌법과 관련 지침에 의하여 2005년 8월, 서울보호관찰소 및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했고, 2006년 한해에는 전국 22개 보호관찰(지)소로 확대,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존스쿨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구매자의 성매매 원인, 동기에 관한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인식과 태도를 전환하고 양성평등적, 인본주의적 사고를 배양하며, 성구매를 범죄로 인식하고 그 책임성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성구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분석서는 2006년 전국 22개 보호관찰(지)소에서 성구매사범을 대상으로 한 존스쿨 교육의 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성구매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역할 인지도, 법의식 및 폭력허용도에 대한 인식, 자아통제력(충동성), 대인관계 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력, 타인 공감 능력, 알코올 의존도, 성적 행태 및 성중독 위험도, 성매매 경험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2005년 12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2005년 법무부용역 연구보고서」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존스쿨 대상자 및 일반 남성 특성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존스쿨 프로그램의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의 공통 항목, 즉, 성매매 관련 태도, 성매매 및 관련자에 대한 비난 태도, 성매매 규제법에 대한 의식, 성매매 피해자 인지, 성매매로 인한 위험 인지도, 성문제의 자각도,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본 처분에 대한 수용도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존스쿨 교육을 실시한 기관별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해 피교육생인 성구매자가 느끼

는 교육 평가를 통해 흥미로운 주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주제와 본 프로그램의 유익성 정도를 검토하고, 성구매자가 교육 수료 후 성매매 의사를 가진 친구나 동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성구매자가 자유 기술한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소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존스쿨 교육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성구매자의 재범방지라는 존스쿨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표준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존스쿨 효과 분석의 목적은 성구매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설문지 분석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을 검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본 분석의 목적에 이를 수 없으며, 존스쿨 담당관 및 담당자가 프로그램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구매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 진행에 있어서도 대상자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나 훈계 위주의 구성이 아닌, 대상자와의 공감을 통한 자발적 개선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배치는 물론, 대상자의 성구매 재범방지에 교육의 초점을 맞춘 대상자 지향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재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접수 및 교육인원 추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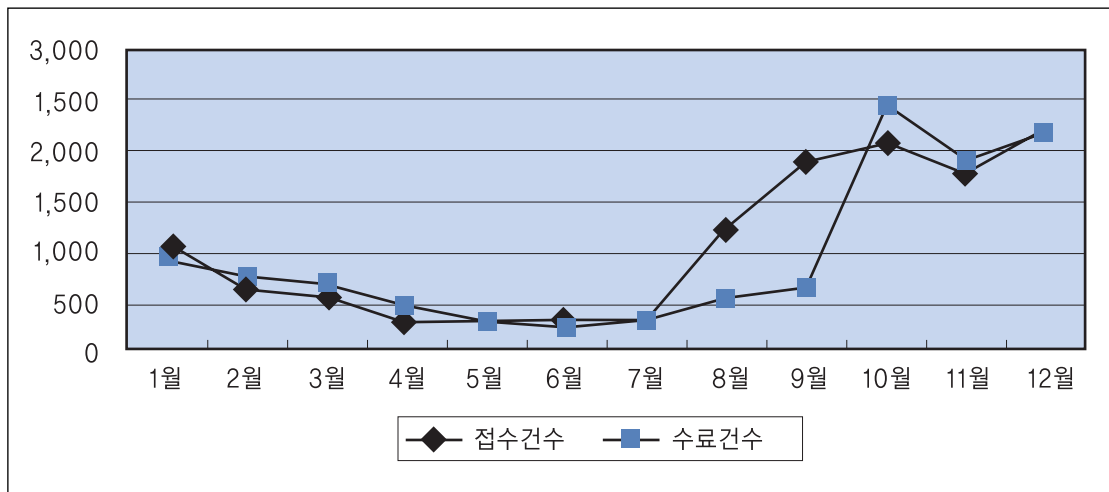
〈표 1-1〉과 [그림 1-1]은 2006년 한해 동안 전국 22개 보호관찰소의 존스쿨 프로그램 대상 성구매자 접수 및 교육 수료 현황과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2005년 2월부터 7월까지 접수 건수가 다른 기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8월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서울, 안산, 인천, 수원지역 관할 검찰이 성매매 처벌법 시행 1주년을 전후하여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 및 단속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8월 이후 성구매자의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2006년 성구매자 접수 및 존스쿨 교육수료 현황

구분 \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접 수	1,049	612	557	300	270	273	308	1,232	1,881	2,081	1,790	2,189	2,542건
수 료	957	744	678	451	286	213	293	504	606	2,457	1,889	2,138	1,216건

※ 2005년 이월 913건



[그림 1-1] 2006년 존스쿨 접수 및 수료 현황



Ⅱ 자료의 수집

1. 자료수집 대상

본 분석서에 사용된 데이터는 전국 22개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서 2006년 한해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을 수료한 11,216명의 설문지 중 기관별 수료 인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 전·후 설문지 각각 1,385건을 분기별로 무작위 추출하였고, 1,385건 중 설문지 작성도가 부실한 90건을 제외한 1,295건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 2-1〉 2006년 기관별 설문지 추출 및 분석 건수

기 관	2006년 교육인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서울	1,363	35(29)	35(31)	35(33)	35(30)	140(123)
의정부	283	11	11	11(10)	12(11)	45(43)
인천	1,033	27(26)	27	28(26)	28(25)	110(104)
수원	857	22	22	23(21)	23(20)	90(85)
춘천	65	2	2	-	6	10
대전	496	17	17	13	23	70
청주	490	-	-	18	52	70
대구	942	15	15	25	45	100
부산	559	19	19(18)	19(16)	18	75(71)
울산	41	-	4	-	6	10
창원	360	12	12(11)	13	13	50(49)
광주	252	10	10	10(9)	10(7)	40(36)
전주	225	-	10	12	18	40
제주	77	-	4(3)	-	11	15(14)
서울남부	537	18	19(16)	19	19(17)	75(70)
서울서부	332	12	12	13	13(11)	50(48)
서울동부	416	15	15	15	15	60
서울북부	269	10	10	10	10	40
부천	241	10	10(9)	10(8)	10(9)	40(36)
성남	363	12	12(11)	13(11)	13	50(47)
안산	1,993	10	20	60(47)	110(87)	200(164)
안동	22	-	-	-	5	5
계	11,216	257(250)	286(274)	347(319)	495(452)	1,385(1,295)

※()는 작성도가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실제 분석 건수임.

2. 설문지의 구성

가. 사전 설문지

성정체성 및 성역할에 대한 인지도, 성매매 관련 일반적 견해 및 태도, 성매매 및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 성매매 규제법 관련 이해도, 성매매의 피해자 인지도, 성매매의 위험성 인지도, 법의식 및 폭력 허용도, 자기 통제력,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 알코올 의존도, 타인 포용 및 공감 능력, 성매매로 인한 손실 인지도, 성중독 위험도, 성구매 경험 관련 제반 사항,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총 17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사후 설문지

성매매 관련 일반적 견해 및 태도, 성매매 및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 성매매 규제법 관련 이해도, 성매매의 피해자 인지도, 성매매의 위험성 인지도, 성매매로 인한 손실 인지도,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 등 55개는 사전 설문지와 질문 내용이 같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55개의 공통된 질문을 통해 존스쿨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구매자에 의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와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친구나 동료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과 개선방안 등 10개의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3. 분석의 틀

사전 설문지는 성구매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아 특성 및 대인관계 능력, 성정체성 및 성역할에 대한 인지도, 법의식 수준 및 폭력허용도, 성매매 경험 분석 등 5개 항목으로, 사후 설문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존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 평가 등 2개 항목으로 대분류하였으며, 대분류 항목에 포함된 각각의 문항들을 분석하고, 필요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집필한 2005년 법무부 용역 연구보고서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개발」의 존스쿨 대상자 509명과 일반 남성 448명, 그리고 일반 남성 448명 중 성구매 경험이 있는 262명에 대한 성구매 경험 등의 분석 결과를 본 분석에 사용된 성구매자의 분석 결과와 비교, 제시하기도 하였다.

4. 분석 방법

통계조사분석시스템(SPSS, V 12.0)을 활용하여 빈도·요인분석 및 T-검정(독립표본, 대응표본)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Ⅲ 성구매자의 개인특성 및 성 인식 분석

1.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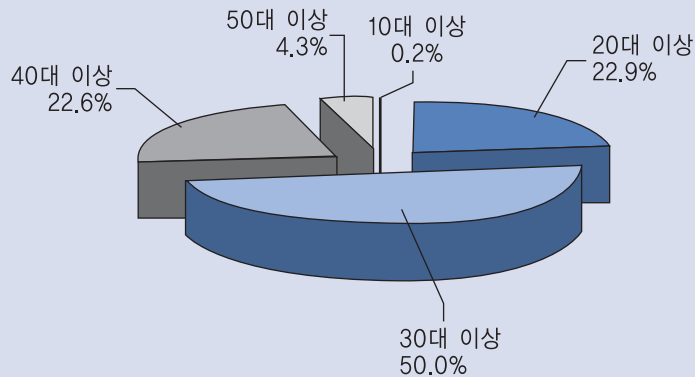
가. 연령

〈표 3-1〉은 성구매자의 만 나이 분포이다. 30대가 50.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20대 22.9%, 40대 2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연령 분포

연 령	빈 도	백분율(%)
10대	2	0.2
20대	296	22.9
30대	645	50.0
40대	291	22.6
50대 이상	5	0.4
합 계	1,289	100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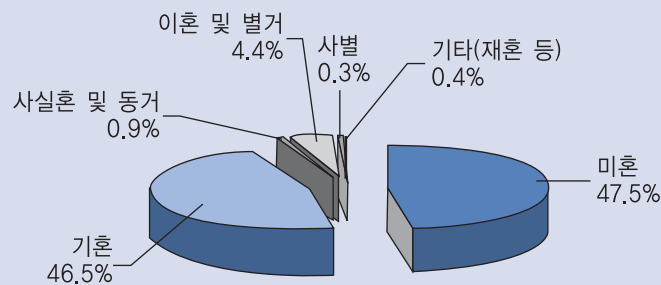
나. 혼인 형태

〈표 3-2〉는 혼인 형태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미혼이 47.5%, 기혼은 46.5%였으며, 사실혼 및 동거, 이혼 및 별거, 사별, 기타 등의 비율이 6.0%였다. 한편, 비교 집단의 조사 결과¹⁾ 미혼이 45.7%로, 성구매자의 미혼 비율 47.5%와의 차이가 1.8p로 나타나 혼인 형태와 성구매간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2〉 혼인 형태 분포

혼인 형태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미 혼	614	47.5	202(45.7)
기 혼	601	46.5	240(54.3)
사실혼 및 동거	11	0.9	
이혼 및 별거	57	4.4	
사 별	4	0.3	
기 타(재혼 등)	5	0.4	
합 계	1,292	100	442(100)

혼인 형태 분포



1)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집필한 2005년 법무부 용역 연구보고서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감명령 표준 프로그램 개발」의 일반 남성에 대한 성매매 경험 분석 결과 인용, 본 분석서의 일반 남성에 대한 자료는 모두 이 연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것임. 〈표 3-2〉부터 〈표 3-32〉까지에서 비교 집단으로 제시한 '일반 남성'이란 존스쿨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매매 경험을 분석한 〈표 3-33〉부터는 '일반 남성 성구매자'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였음. 본 분석과 2005년의 분석대상(존스쿨대상 및 일반남성 포함)과는 분석 연도가 다르고 표본 선정 및 추출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분석 결과의 빈도와 평균값만을 참고적으로 비교, 제시했으며,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검증하지는 않았음.

다.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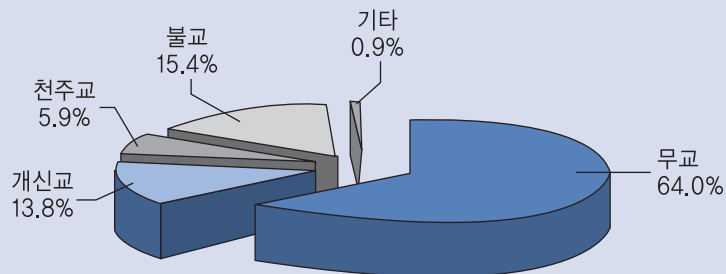
1) 종교 유무

〈표 3-3〉은 존스쿨 수료자의 종교 분포로, 무교의 비율이 64.0%였으며, 불교 15.4%, 개신교 13.8%, 천주교 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 집단의 무교 비율은 55.1%로 성구매자의 무교 비율 64.0%보다 8.9p 낮게 나타났다.

〈표 3-3〉 종교 유무 분포

혼인 형태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무 교	820	64.0	243(55.1)
개신교	177	13.8	198(44.9)
천주교	76	5.9	
불 교	197	15.4	
기 타	11	0.9	
합 계	1,281	100	441(100)

종교 분포



2) 종교모임 정기참석 여부

〈표 3-4〉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종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종교가 있는 자 중 36.3%만이 정기적으로 종교 모임에 참석하였고, 나머지 63.7%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 종교모임 정기참석 여부 분포

종교모임 정기참석 여부	빈 도	백분율(%)
참석함	161	36.3
참석하지 않음	283	63.7
합계	4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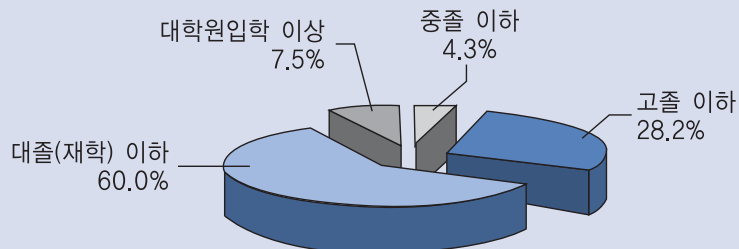
라. 학력

〈표 3-5〉는 학력 분포로 대입 이상 대졸 이하 학력자가 60.0%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졸 이하 28.2%, 대학원 입학 이상 7.5%, 중졸 이하 학력자 4.3%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 집단의 학력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성구매자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3-5〉 학력 분포

혼인 형태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중졸 이하	55	4.3	46(10.3)
고졸 이하	363	28.2	152(33.9)
대졸(재학) 이하	774	60.0	250(55.8)
대학원입학 이상	97	7.5	
합 계	1,289	100	448(100)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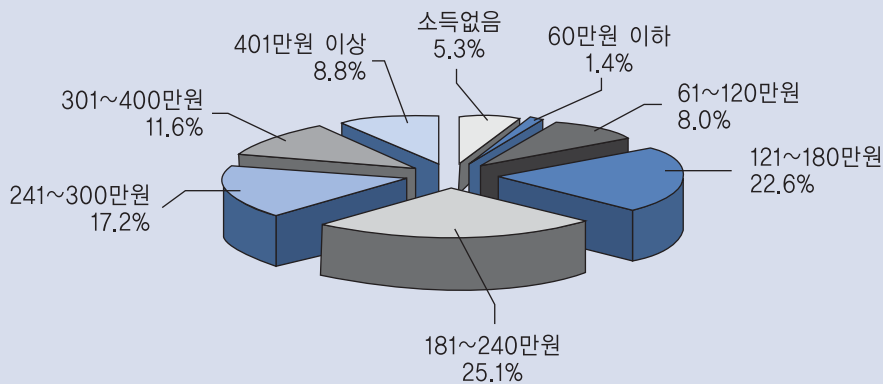
마. 월평균 총수입

〈표 3-6〉은 월평균 총수입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181~240만원인 자의 비율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21~180만원 22.6%, 241~300만원 17.2% 등의 순서를 보였다. 비교 집단에 비해 120만원 이하 소득자의 비율은 낮고, 241만원 이상 소득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 3-6〉 월평균 총수입 분포

혼인 형태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소득없음	69	5.3	124(27.9)
60만원 이하	18	1.4	
61~120만원	103	8.0	
121~180만원	291	22.6	111(24.9)
181~240만원	324	25.1	90(20.2)
241~300만원	222	17.2	120(27.0)
301~400만원	150	11.6	
401만원 이상	113	8.8	
합 계	1,290	100	445(100)

월평균 총수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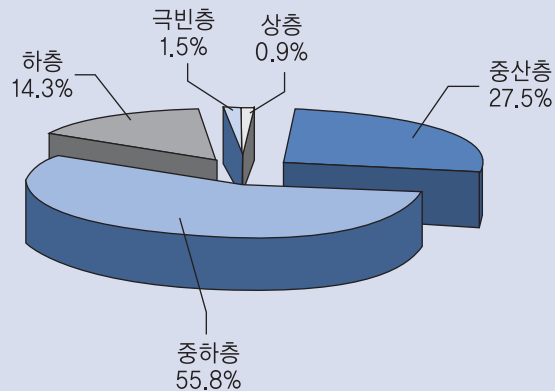
바. 가정의 생활수준

〈표 3-7〉은 가정의 생활수준 분포로 중하층이 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중상층 27.5%, 하층 14.3%순이었으며, 상층과 극빈층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2005년의 비교 집단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층과 극빈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성구매와 경제적 능력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표 3-7〉 가정의 생활수준 분포

혼인 형태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상 층	11	0.9	5(1.1)
중상층	355	27.5	134(29.9)
중하층	720	55.8	233(52.0)
하 층	185	14.3	66(14.8)
극빈층	19	1.5	10(2.2)
합 계	1,290	100	448(100)

가정의 생활수준 분포



사. 직 업

1) 직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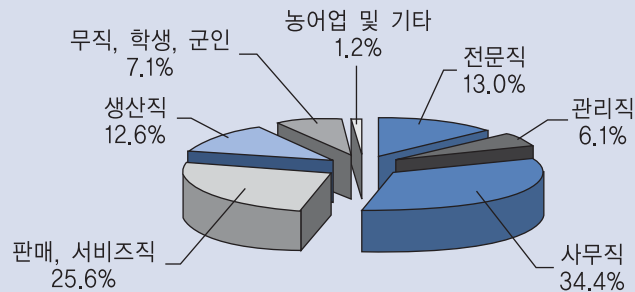
〈표 3-8〉은 직업 유형 분포로 사무직의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직 25.6%, 전문직 13.0%, 생산직 12.6%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2005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성구매자 분석 결과와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전문직의 비율 13.0% 중 의사,약사,변호사,대학교수 등은 11.5%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문직 전체의 70.9%는 기술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사무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 및 기타 직업 유형자의 비율이 성구매자보다 9.4p 높았다. 이러한 분포 차이 또한, 성구매와 경제적 능력과의 연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3-8〉 직업 유형 분포

혼인 형태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전문직	165	13.0	58(13.1)
관리직	77	6.1	21(4.8)
사무직4	38	34.4	105(23.8)
판매, 서비스직	326	25.6	126(28.6)
생산직	161	12.6	53(12.0)
무직, 학생, 군인	90	7.1	78(17.7)
농 · 어업 및 기타	15	1.2	
합 계	1,272	100	441(100)

직업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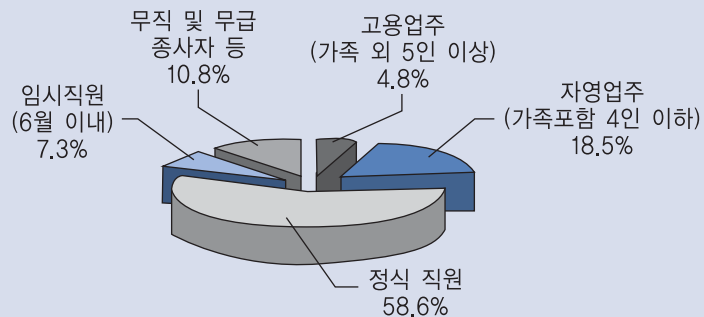
2) 직장 내 지위

〈표 3-9〉는 직장 내 지위 분포로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정식 직원의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소규모 자영업주 18.5%, 무직, 학생, 군인 및 무급가족 종사자 등 10.8%, 임시직원 7.3%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직장 내 지위 분포

직장내 지위	빈 도	백분율(%)
고용업주(가족 외 5인 이상)	62	4.8
자영업주(가족포함 4인 이하)	237	18.5
정식 직원	752	58.6
임시직원(6월 이내)	93	7.3
무직 및 무급종사자 등	139	10.8
합 계	1,283	100

직장 내 지위 분포



아. 흡연과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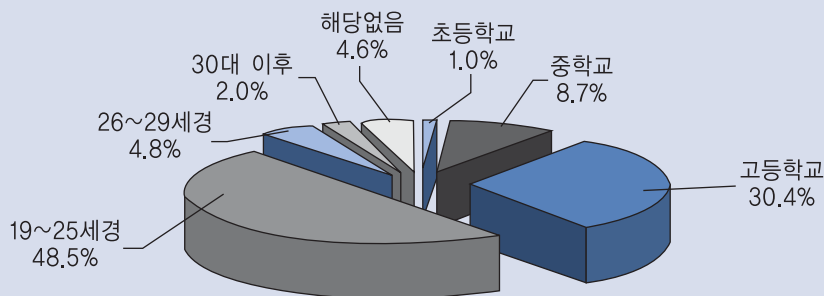
1) 흡연(음주) 시작 연령

〈표 3-10〉은 최초 흡연 내지 음주 시작 연령으로 흡연과 음주 중 먼저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만나이 19~25세경에 흡연 내지 음주를 시작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때 30.4%, 중학교 때 8.7%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2005년 성구매자에 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3-10〉 흡연(음주) 시작 연령 분포

시작 시점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초등학교	13	1.0	85(19.0)
중학교	113	8.7	
고등학교	393	30.4	160(35.8)
19~25세경	628	48.5	153(34.2)
26~29세경	62	4.8	10(2.3)
30대 이후	26	2.0	
해당없음	59	4.6	39(8.7)
합 계	1,294	100	447(100)

흡연(음주) 시작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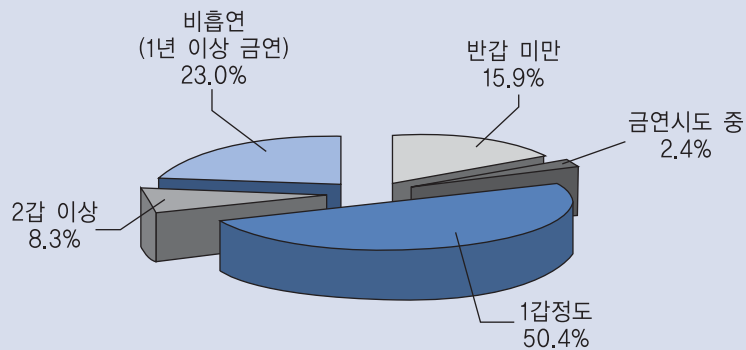
2) 최근 1년 간 하루 흡연량

〈표 3-11〉은 최근 1년 간 하루 흡연량을 분석한 결과로 1갑정도가 5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비흡연 23.0%, 반갑 미만 15.9%, 2갑 이상 8.3%순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구매자 분석에서도 1갑정도, 비흡연, 반갑 미만, 2갑 이상의 비율이 각각 49.0%, 25.4%, 18.3%, 7.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아래 표의 비교 집단과 하루 흡연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성구매자의 비흡연 비율이 낮고 흡연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최근 1년 간 하루 흡연량 분포

흡연량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반갑 미만	205	15.9	72(16.4)
금연 시도 중	30	2.4	
1갑정도	648	50.4	197(44.8)
2갑 이상	107	8.3	31(7.0)
비흡연(1년 이상 금연)	296	23.0	140(31.8)
합 계	1,286	100	440(100)

흡연(음주) 시작 연령 분포



3) 최근 1년 간 음주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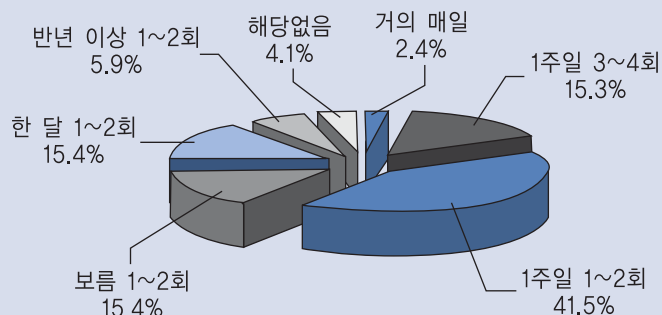
〈표 3-12〉는 최근 1년간 음주 빈도 분포로 1주일에 1~2회 정도 음주하는 자의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1주일 3~4회, 보름 1~2회, 한 달 1~2회인 자의 비율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비음주자의 비율은 비교 집단이 2.8p 높았지만, 일주일에 3~4회 이상 음주하는 자의 비율도 비교 집단이 5.7p 높게 나타나, 일반 남성에게 비해 성구매자의 음주 빈도에 있어서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12〉 최근 1년 간 음주 빈도 분포

음주빈도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거의 매일	31	2.4	105(23.4)
1주일 3~4회	197	15.3	
1주일 1~2회	535	41.5	171(38.2)
보름 1~2회	199	15.4	53(11.8)
한달 1~2회	199	15.4	67(15.0)
반년 이상 1~2회	76	5.9	21(4.7)
해당없음	53	4.1	31(6.9)
합 계	1,290	100	448(100)

최근 1년 간 음주 빈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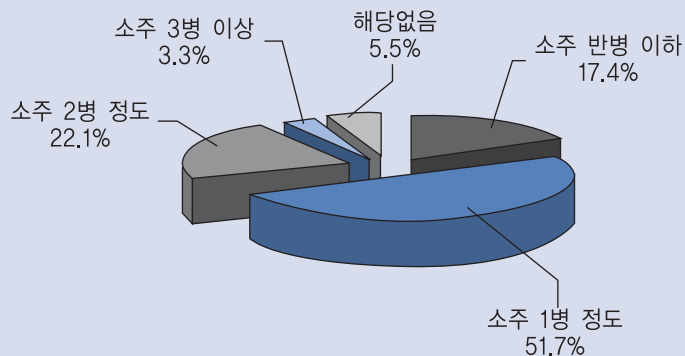
4) 최근 1년 간 1회 평균 음주량

〈표 3-13〉은 최근 1년 간 1회 평균 음주량을 분석한 것으로, 1회 음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인 자의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소주 두 병 정도 22.1%, 소주 반 병 이하 17.4%순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05년의 연구 대상인 일반 남성의 1회 음주량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음주자의 비율 또한 일반 남성의 5.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3-13〉 최근 1년 간 1회 평균 음주량 분포

음주량	빈 도	백분율(%)
소주 반 병 이하	223	17.4
소주 한 병 정도	661	51.7
소주 두 병 정도	283	22.1
소주 세 병 이상	42	3.3
해당없음	70	5.5
합 계	1,279	100

최근 1년 간 1회 평균 음주량 분포



자. 금지약물 남용 경험

〈표 3-14〉는 불법적인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로, 98.8%는 사용 경험이 없었으며, 1.2%는 금지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성구매자 분석 결과에서는 금지약물 남용 경험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비율이 각각 99.4%와 0.6%였으며, 아래 표에서 제시한 비교 집단은 각각 95.1%와 4.9%로 오히려 성구매자 집단보다 일반 남성의 경우가 금지약물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구매와 금지약물 경험 여부와는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4〉 금지약물 남용 경험 분포

금지약물 사용유무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없 음	1,274	98.8	425(95.1)
있 음	15	1.2	22(4.9)
합 계	1,289	100	447(100)

차. 범죄경력

〈표 3-15〉는 범죄경력 분포로 전체 성구매자의 78.6%는 범죄경력이 없었으며, 21.4%는 재산, 폭력, 교통관련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성구매자 및 일반 남성의 분석 결과에서는 범죄경력이 없는 자의 비율이 각각 81.1%와 83.8%로 성구매자가 일반 남성보다 범죄경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범죄경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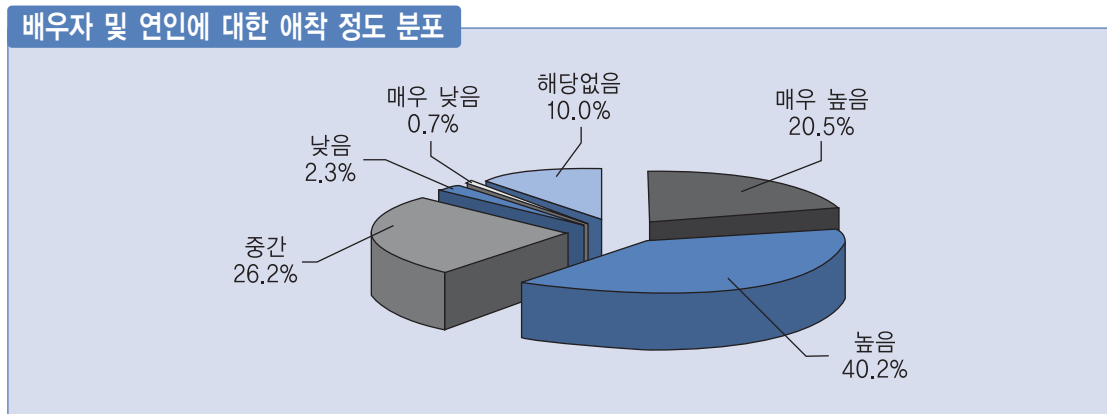
범죄경력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없 음	1,003	78.6	396(81.1)	372(83.8)
재산관련	13	1.0	92(18.9)	72(16.2)
폭력관련	62	4.9		
교통관련	165	12.9		
기 타	22	1.7		
폭력, 교통	10	0.8		
재산, 폭력, 교통	1	0.1		
합 계	1,276	100	488(100)	448(100)

카. 배우자 및 연인에 대한 애착 정도

〈표 3-16〉은 배우자 및 연인에 대한 애착 정도를 조사한 자료로, ‘높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간 26.2%, 매우 높음 20.5%순이었다. 이러한 비율 순서와 차이를 2005년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구매자와 일반 남성의 경우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16〉 배우자 및 연인에 대한 애착 정도 분포

애착정도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매우 높음	263	20.5	100(22.6)
높 음	517	40.2	179(40.5)
중 간	337	26.2	117(26.4)
낮 음	30	2.3	6(1.4)
매우 낮음	9	0.7	2(0.5)
해당없음	129	10.1	38(8.6)
합 계	1,285	100	442(100)



타. 최근 가족과 별거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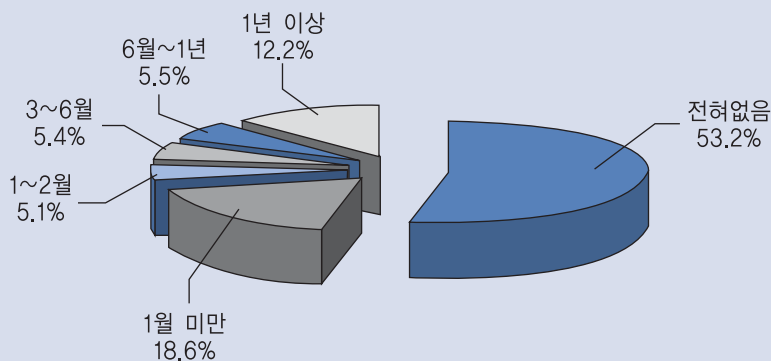
〈표 3-17〉은 최근 1년 간(별거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업무 등의 이유로 가족과 별거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가족과의 별거 사실이 없는 경우가 5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1월 미만 18.6%, 1년 이상 12.2%순으로 나타났다.

성구매자의 분석 결과를 아래 표의 비교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별거 사실이 없는 비율은 9.4p 낮았고, 1년 이상 별거 사실이 있는 비율은 4.2p 높았다.

〈표 3-17〉 최근 1년 간 가족과 별거 기간 분포

별거기간	빈 도	백분율(%)	일반 남성(%)
전혀없음	6,705	3.2	275(62.6)
1월 미만	234	18.6	70(16.0)
1~2월	64	5.1	23(5.2)
3~6월	68	5.4	19(4.3)
6월~1년	69	5.5	17(3.9)
1년이상	153	12.2	35(8.0)
합 계	1,258	100	439(100)

최근 1년 간 가족과 별거 기간 분포



2. 자아 특성 및 대인관계 능력

성구매자의 자아 특성 및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아 통제력 및 충동성, 대인관계 주도력, 스트레스 조절 능력,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 및 공감성, 음주 습관 및 알코올 의존도, 성적 행태와 성중독 위험도 등 6개의 요인으로 명명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위 6개의 요인 중 ‘자아 통제력 및 충동성’, ‘대인관계 주도력’, ‘스트레스 조절 능력’ 등 3개의 요인은 모두 ‘절대아니다(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해당 문항의 빈도와 비율, 그리고 평균과 최빈값을 나타냈고, 나머지 3개의 요인은 ‘예’와 ‘아니오’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요인 전체 평균과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존스쿨 대상자와 일반 남성의 전체 평균값을 추가로 비교, 제시하였다.

가. 자아통제력 및 충동성

〈표 3-18〉은 성구매자의 자아 통제력 및 충동성 수준을 나타내 주고 있다. 10개 문항 중 9개 문항에서 최빈값이 ‘별로 그렇지 않다’ 였고, 1개 문항은 ‘절대 아니다’ 가 최빈값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도 ‘2’ 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어 성구매자는 스스로 자아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성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0개 문항의 총 평균값으로 볼 때,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과 일반 남성에 비해 비교적 자아 통제력이 높고 충동성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표 3-18〉 자아통제력 및 충동성 분포

문 항	절대 아니다 (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라도 한다	295 (22.8)	592 (45.7)	300 (23.2)	94 (7.2)	14 (1.1)	2.18	2	2.09	2.15	2.41
2. 일이 복잡해지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263 (20.3)	611 (47.2)	293 (22.6)	115 (8.9)	13 (1.0)	2.23	2			
3.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673 (52.0)	479 (37.0)	115 (8.9)	21 (1.6)	6 (0.5)	1.62	1			
4. 종종 재미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다	365 (28.2)	538 (41.6)	286 (22.1)	98 (7.6)	7 (0.5)	2.11	2			
5. 안전한 것보다 스릴있고 신나는 모험이 더 좋다	260 (20.1)	529 (40.9)	350 (27.0)	140 (10.8)	16 (1.2)	2.32	2			
6.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67 (20.6)	608 (47.0)	297 (23.0)	108 (8.3)	14 (1.1)	2.22	2			
7.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225 (17.4)	584 (45.1)	331 (25.6)	141 (10.9)	13 (1.0)	2.33	2			
8.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없이 되는대로 한다	350 (27.1)	651 (50.3)	229 (17.7)	57 (4.4)	7 (0.5)	2.01	2			
9.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409 (31.6)	639 (49.4)	192 (14.9)	47 (3.6)	7 (0.5)	1.92	2			
10. 뭇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391 (30.2)	612 (47.3)	217 (16.8)	66 (5.1)	8 (0.6)	1.99	2			

나. 대인관계 주도력

〈표 3-19〉는 대인관계 주도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6개 문항 모두에서 최빈값이 3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의 평균과 전체 평균, 그리고 2005년 연구 결과의 평균값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3, 보통이다’에 집중되어 있다.

〈표 3-19〉 대인관계 주도력 분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37 (2.9)	244 (18.8)	624 (48.2)	353 (27.2)	37 (2.9)	3.08	3	3.21	3.19	3.20
2. 모임의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40 (3.1)	250 (19.3)	635 (49.1)	332 (25.7)	36 (2.8)	3.06	3			
3. 여러 행사를 잘 조직할 수 있습니까?	21 (1.6)	235 (18.2)	556 (43.0)	417 (32.3)	64 (3.9)	3.21	3			
4.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9 (0.7)	102 (7.9)	581 (44.9)	543 (41.9)	60 (4.6)	3.42	3			
5. 놀러갔을 때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16 (1.2)	178 (13.8)	615 (47.5)	438 (33.8)	48 (3.7)	3.25	3			
6. 모임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까?	16 (1.2)	169 (13.1)	632 (48.8)	437 (33.7)	41 (3.2)	3.25	3			

다. 스트레스 조절 능력

〈표 3-20〉은 스트레스 조절 능력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2번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에서 최빈값이 ‘3, 보통이다’로 나타났고, 위 〈표 3-19〉의 대인관계 주도력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의 평균과 전체 평균, 그리고 2005년 연구 결과의 평균값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통이다’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0〉 스트레스 조절 능력 분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 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쓸데없는 걱정을 잘 버릴 수 있습니까?	44 (3.4)	425 (32.8)	479 (37.0)	312 (24.1)	35 (2.7)	2.90	3	2.96	2.88	2.93
2. 언짢은 경험에 대한 생각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61 (4.7)	507 (39.2)	438 (33.8)	267 (20.6)	22 (1.7)	2.75	2			
3. 일상생활의 문제로 생긴 불쾌한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17 (1.3)	227 (17.5)	595 (46.0)	411 (31.7)	45 (3.5)	3.19	3			
4. 불쾌한 경험 후에 당신이 해야 되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39 (3.0)	386 (29.8)	574 (44.3)	267 (20.6)	29 (2.3)	2.89	3			
5. 기분나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14 (1.1)	246 (19.0)	636 (49.1)	363 (28.0)	36 (2.8)	3.12	3			
6. 불쾌한 일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26 (2.0)	368 (28.4)	609 (47.0)	260 (20.1)	32 (2.5)	2.93	3			

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 및 공감성

〈표 3-21〉은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 및 공감성, 즉,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몇 가지 유형들의 사회적 소수 이웃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타인 공감능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타인 공감능력을 측정한 전체 평균이 1.78로 ‘1, 예’와 ‘2, 아니오’의 중앙값 1.5를 기준으로 할 때, ‘아니오’에 많이 치우쳐 있으며,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 평균값 1.76, 일반 남성의 평균값 1.78과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 및 공감성 분포

문 항	예 (1)	아니오 (2)	평균	전체평균	2005년 연구(평균)	
					성구매자	일반남성
1. 극단적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	228 (17.6)	1,066 (82.4)	1.82	1.78	1.76	1.78
2.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258 (19.9)	1,036 (80.1)	1.80			
3. 에이즈 환자	290 (22.4)	1,003 (77.6)	1.78			
4.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552 (42.7)	741 (57.3)	1.57			
5. 마약상습 복용자	95 (7.3)	1,198 (92.7)	1.93			

마. 음주 습관 및 알코올 의존도

〈표 3-22〉는 신속알코올문제선별검사(Rapid Alcohol Problem Screen ; RAPS) 도구를 사용하여 설문에 응한 성구매자 집단의 음주 습관 및 알코올 의존도를 측정된 결과로, 5개 문항 중 1개 문항이라도 ‘예’ 라고 답하면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1개 문항 이상에 ‘예’ 라고 답한 자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56.3%로, 과반수 이상이 알코올 문제 의심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문항 이상에 ‘예’ 라고 답한 비율도 약 38%에 달하였다.

2005년 연구 결과에서는 1개 문항 이상에 ‘예’ 라고 답한 존스쿨 대상자의 비율이 46.2%로, 본 분석의 알코올 문제 의심군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 남성 중 알코올 문제 의심군의 비율은 56.3%로 본 설문에 응한 성구매자 집단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3-22〉 음주 습관 및 알코올 의존도 분포

문 항	예 (1)	아니오 (2)	1문항 이상 '예'	5문항 모두 '아니오'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1문장이상 '예'	일반남성 1문장이상 '예'
1.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135 (10.4)	1,157 (89.6)	726 (56.3)	564 (43.7)	235(46.2)	169(64.5)
2. 친구나 가족이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취중에 당신이 한 이야기나 행동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402 (31.1)	891 (68.9)				
3. 음주 때문에 죄책감이나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580 (44.9)	712 (55.1)				
4.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나 업무를 망친 적이 있습니까?	382 (29.6)	909 (70.4)				
5. 음주 때문에 배우자나 이성 친구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73 (5.6)	1,220 (94.4)				

바. 성적 행태와 성중독 위험도

〈표 3-23〉은 성중독 선별검사를 통해 성구매자의 성적인 강박이나 성중독 성향을 평가한 결과이다. 정기적이고 일정한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장애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의 정도에 따라 성중독 의심군으로 분류될 경우 성매매나 피가학적 성행동(Sado-masochism) 등 강박적 일탈행동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에서는 아래 20개 문항 중 5개 문항 이상에 '예' 라고 답할 경우 성중독 의심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분석에서 5개 문항 이상에 '예' 라고 답한 비율은 14.2%였고, 2005년의 연구에서는 존스쿨 대상자 16.1%, 일반 남성 18.5%가 5개 문항 이상에 '예' 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분석 및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와 일반 남성 중 성구매 경험이 10회 이상(성구매 지속집단)인 집단만을 분석해 보았을 때, 성중독 의심군의 비율이 각각 19.5%, 22.2%, 33.0%로, 성구매 경험이 많을수록 성중독 의심군으로 분류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3-23〉 성적 행태와 성중독 위험도 분포

문항	예 (1)	아니오 (2)	0-4 문항 '예'	5문항 이상 '예'	2005년 연구 5문항 이상 '예'	
					존스쿨 대상	일반남성
1. 정기적으로 포르노나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소설, 잡지, 만화 등을 구입하나요?	76 (5.9)	1,219 (94.1)				
2. 연애편계가 감정적, 신체적 학대관계로 변질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33 (2.5)	1,262 (97.5)				
3. 자신의 성적행태가 정상적이라고 느끼니까?	1,144 (88.3)	151 (11.7)				
4. 파트너 또는 가족이 당신의 성적행태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106 (8.2)	1,187 (91.8)				
5. 자신의 성적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고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19 (9.2)	1,172 (90.8)				
6. 자신의 성적행태에 대해 죄의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261 (20.2)	1,033 (79.8)				
7. 자신의 성적행태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53 (4.1)	1,242 (95.9)				

문 항	예 (1)	아니오 (2)	0-4 문항 '예'	5문항 이상 '예'	2005년 연구 5문항 이상 '예'	
					존스쿨 대상	일반남성
8. 자신의 좋지 않은 성적행태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81 (6.3)	1,212 (93.7)	1,102 (85.8)	182 (14.2)	82 (16.1)	82 (18.5)
9. 다른 사람이 본인의 성적행태에 대해 알까봐 걱정하는 적이 있습니까?	164 (12.7)	1,131 (87.3)				
10. 당신의 성적행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42 (3.2)	1,253 (96.8)				
11. 특정한 성적행태를 멈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까?	86 (6.7)	1,207 (93.3)				
1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적행태 중 어떤 것을 숨긴 적이 있습니까?	149 (11.5)	1,144 (88.5)				
13. 자신의 성적행태가 점차 저속해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64 (12.7)	1,130 (87.3)				
14. 섹스나 성적 공상을 자신의 문제회피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142 (11.0)	1,151 (89.0)				
15. 섹스 이후, 당신은 우울함을 느끼니까?	117 (9.0)	1,177 (91.0)				
16. 당신은 종종 피학-가학적 행동을 드러냅니까?	23 (1.8)	1,271 (98.2)				
17. 자신의 성적행태로 인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6 (2.8)	1,258 (97.2)				
18. 미성년자와의 성경험이 있습니까?	46 (3.6)	1,248 (96.4)	1,102 (85.8)	182 (14.2)	82 (16.1)	82 (18.5)
19. 자신의 성욕이 당신 자신보다도 더 강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56 (19.8)	1,038 (80.2)				
20. 성욕이나 성적 공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75 (5.8)	1,219 (94.2)				

3. 성정체성 및 성역할에 대한 인지도

성정체성 및 성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검사하기 위해 15개의 설문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²⁾한 결과, 「지배적 남성 성 및 성적 편견」, 「성역할 인지 및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전통적 여성다움 인지도」 등 세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눌 수 있었고, 여기에 '남성 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성별에 대한 자기 만족도'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요인으로 압축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가. 지배적 남성성 및 성적 편견

〈표 3-24〉는 요인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공통성과 연관성이 있는 6개의 문항을 하나로 묶어 지배적 남성 성 및 성적 편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1. 절대아니다'부터 '5. 매우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한 빈도와 비율, 그리고 평균과 최빈값을 나타냈으며, 여기에 6개 문항의 전체 평균과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³⁾에서 분석한 성구매자와 일반 남성의 전체 평균값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배적 남성 성과 성적 편견 및 과시욕, 우월감에 있어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한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1번과 3번 문항에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절대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전체 평균은 2.23으로 2005년 분석 결과의 성구매자 평균 2.2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 남성의 2.53보다는 오히려 낮았다. 이는 성구매자의 '지배적 남성성 및 성적 편견' 수준을 일반 남성과 비교해 볼 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존스쿨 프로그램 중 설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기 보다는 자기 방어적 검사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용인되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과도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제시하거나 자기 결점을 부인하고자 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2) 여러 개의 변수들을 논리적인 공통성과 상호 연관성 정도에 따라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변수끼리 묶음으로써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압축 요약하는 통계분석 기법

3) 분석대상 건수는 성구매자 509건, 일반 남성 448건임.

〈표 3-24〉 지배적 남성 성 및 성적 편견 분포

문 항	절대 아니다 (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153 (11.8)	421 (32.6)	448 (34.6)	256 (19.8)	16 (1.2)	2.66	3	2.23	2.27	2.53
2. 남을 지배하고 싸움을 잘 할줄 알아야 남자답다	381 (29.4)	518 (40.0)	265 (20.5)	120 (9.3)	11 (0.8)	2.12	2			
3. 남자는 성적으로 강해야 하고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199 (15.5)	455 (35.3)	398 (30.9)	218 (16.9)	18 (1.4)	2.53	2			
4.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아야 남자답다	305 (23.6)	565 (43.7)	351 (27.1)	65 (5.0)	8 (0.6)	2.15	2			
5. 남자의 외도는 곧 능력이다	582 (45.0)	458 (35.4)	184 (14.2)	60 (4.7)	9 (0.7)	1.81	1			
6. 여성의 가치는 성적으로 얼마나 섹시한가에 달려있다	333 (25.7)	561 (43.4)	320 (24.7)	68 (5.3)	11 (0.9)	2.12	2			

※ 셀의 각 수치는 빈도, ()는 백분율(%)

나. 성역할 인지 및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표 3-25〉는 5개의 문항 분석을 통해 성역할 인지 및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3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문항에서 ‘4’가 최빈값⁴⁾으로 나타나 성구매자의 성역할 인지 및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수준은 전통적인 보수 성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부부 갈등시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3번 문항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40%를 넘었다.

전체 평균은 3.21로 2005년 분석 결과의 성구매자 평균 3.13보다는 높았고, ‘지배적 남성 성 및 성적 편견’과 마찬가지로 일반 남성의 3.46보다는 오히려 낮았다.

〈표 3-25〉 성역할 인지 및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분포

문 항	절대 아니다 (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 표가되어야 한다	109 (8.4)	245 (19.0)	290 (22.4)	531 (41.1)	118 (9.1)	3.24	4	3.21	3.13	3.46
2.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63 (4.9)	119 (9.2)	164 (12.7)	691 (53.4)	256 (19.8)	3.74	4			
3. 부부 갈등이 생기면 아내 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88 (14.5)	528 (40.8)	395 (30.5)	165 (12.8)	18 (1.4)	2.46	2			
4.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 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113 (8.7)	265 (20.5)	327 (25.3)	459 (35.5)	129 (10.0)	3.17	4			
5.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 이 우선되어야 한다	53 (4.1)	230 (17.8)	293 (22.6)	537 (41.5)	182 (14.1)	3.44	4			

4)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값

다. 순종적·전통적 여성 성 인지도

〈표 3-26〉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된 3개의 문항을 하나로 묶어 순종적·전통적 여성성 인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자는 결혼할 때 처녀여야 한다’는 1번 문항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43.0%로 가장 높아 여성의 처녀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고, 2번과 3번 문항에서는 전통적인 여성 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92였다.

2005년의 연구에서는 순종적·전통적 여성 성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4개로 본 분석과의 문항 차이로 인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표 3-26〉 순종적·전통적 여성 성 인지도 분포

문 항	절대 아니다 (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1. 여자는 결혼할 때 처녀 여야 한다	224 (17.3)	556 (43.0)	323 (25.0)	155 (12.0)	35 (2.7)	2.40	2	2.92
2.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지 않다는 여자는 문 제가 있다	106 (8.2)	318 (24.7)	350 (27.2)	356 (27.6)	158 (12.3)	3.11	4	
3. 남자가 술취한 모습보다 여자가 술취한 모습이 더 보기 싫다	82 (6.4)	234 (18.1)	369 (28.6)	476 (36.8)	131 (10.1)	3.26	4	

라. 남성 성에 대한 자기평가

〈표 3-27〉은 남성성에 대한 자기평가 분포로 '1. 매우 여성적이다' 부터 '7. 매우 남성적이다' 까지 7점 척도로 하여 빈도와 비율, 그리고 평균과 최빈값을 나타냈으며, 여기에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성구매자와 일반 남성의 평균값을 추가로 비교, 제시하였다.

남성 성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보통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약 63%로 가장 높았고, 여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1, 2, 3번으로 답한 비율은 전체의 3.7%에 지나지 않았다.

평균은 4.44, 최빈값은 4였으며, 2005년 분석의 성구매자 평균 4.54, 일반 남성의 평균 4.71에 비해, 남성 성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남성 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27〉 남성 성에 대한 자기평가 분포

자기평가	빈 도	백분율(%)	평균	최빈값	2005년 연구(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남성
1. 매우 여성적임	1	0.1%	4.44	4	4.54	4.71
2. 여성적임	2	0.2%				
3. 어느정도 여성적임	44	3.4%				
4. 보 통	807	62.9%				
5. 어느정도 남성적임	278	21.6%				
6. 남성적임	110	8.6%				
7. 매우 남성적임	41	3.2%				
합 계	1,283	100%				

마. 성별에 대한 자기 만족도

〈표 3-28〉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만족도를 나타낸 결과로 ‘1. 전혀 만족하지 못함’부터 ‘7. 매우 만족함’까지 7점 척도로 하여 빈도와 비율, 그리고 평균과 최빈값을 나타냈으며, 여기에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성구매자와 일반 남성의 평균값을 추가로 비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저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2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어느 정도 만족함’ 27.4%, ‘매우 만족함’ 22.1%, ‘만족함’ 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성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최빈값은 4이지만, 전체 평균이 5.2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자신이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05년 분석한 성구매자의 평균 5.40과 일반 남성의 평균 5.59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성별에 대한 자기만족도 분포

만족도	빈 도	백분율(%)	평균	최빈값	2005년 연구(평균)	
					존스콜 대상	일반남성
1. 전혀 만족하지 못함	9	0.7	5.27	4	5.40	5.59
2. 만족하지 못함	6	0.5				
3. 어느정도 만족하지 못함	19	1.5				
4. 그저 그렇다	374	29.2				
5. 어느정도 만족함	352	27.4				
6. 만족함	239	18.6				
7. 매우 만족함	284	22.1				
합 계	1,283	100				

IV 성구매자의 법의식 수준 및 폭력허용도 분석

성구매자의 법의식 수준 및 폭력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20개의 설문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한 결과, 20개의 문항 중 논리적인 연관성이 약한 1개의 문항을 제외한 19개의 문항을 5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압축하였고, 각각의 요인을 「법위반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성적폭력 신뢰도」, 「폭력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가정 및 학교폭력 허용도」 등으로 명명하여 분석하였으며, 19개의 각 문항은 모두 '절대아니다' 부터 '매우그렇다' 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해당 문항의 빈도와 비율, 그리고 평균과 최빈값을 나타냈고, 여기에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로 묶인 요인 전체 평균과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성구매자와 일반 남성의 전체 평균값을 추가로 비교, 제시하였다.

한편, 법 위반 및 폭력허용도 등 위의 4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은 법 위반과 폭력에 대해 허용하는 수준, 즉 평균값이 2005년 분석한 일반 남성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구매자가 설문에 응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1. 법 위반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표 4-1〉은 요인분석을 통해 논리적인 공통성과 연관성이 있는 5개의 문항을 하나로 묶어 법 위반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를 분석한 자료이다. 1번과 2번, 그리고 3번 문항에서는 모두 '절대아니다'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4번과 5번 문항에서는 '절대아니다'와 근소한 비율 차이로 '별로 그렇지 않다'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성구매자가 법 위반에 대해 합리화를 하거나 법위반을 허용하고자 하는 반규범적인 수준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2.00으로 2005년 성구매자와 일반 남성의 평균값 2.15와 2.59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1〉 법 위반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분포

문 항	절대 아니다 (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421 (32.6)	410 (31.7)	337 (26.1)	105 (8.1)	19 (1.5)	2.14	1	2.00	2.15	2.59
2.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	607 (46.9)	436 (33.7)	191 (14.8)	48 (3.7)	11 (0.9)	1.78	1			
3.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558 (43.2)	463 (35.8)	215 (16.6)	49 (3.8)	8 (0.6)	1.83	1			
4. 법대로 살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법을 어길 수 있다	395 (30.6)	396 (30.7)	327 (25.3)	143 (11.0)	31 (2.4)	2.24	2			
5.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 있다	455 (35.2)	467 (36.1)	264 (20.4)	92 (7.1)	15 (1.2)	2.03	2			

2. 성적폭력 신뢰도

〈표 4-2〉는 요인분석을 통해 아래의 4개 문항을 요인 ‘성적폭력 신뢰도’로 압축한 후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4개의 문항 모두에서 성적폭력을 허용하거나 신뢰하는 수준이 ‘절대아니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체 평균 또한, 1.69로 ‘법외수준 및 폭력허용도’에 해당하는 4가지 요인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고, 2005년 분석의 성구매자와 일반 남성의 평균값 1.86과 2.20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표 4-2〉 성적폭력 신뢰도 분포

문 항	절대 아니다 (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남자가 여자를 거칠게 다룰 때, 많은 여자는 성적 자극을 느낀다	572 (44.3)	513 (39.7)	176 (13.6)	22 (1.7)	9 (0.7)	1.75	1	1.69	1.86	2.20
2. 때론 남자가 냉담한 여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 사용이다	875 (67.6)	335 (25.9)	75 (5.8)	7 (0.5)	2 (0.2)	1.40	1			
3. 여자는 내심 자신을 거칠게 다루는 남자를 좋아한다	557 (43.2)	541 (41.9)	172 (13.3)	16 (1.2)	5 (0.4)	1.74	1			
4. 여자들은 무의식중에 강압적인 섹스를 원하며 즐긴다	495 (38.3)	545 (42.1)	211 (16.3)	34 (2.6)	9 (0.7)	1.85	2			

3. 폭력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표 4-3〉은 아래의 6개 문항을 요인 ‘폭력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로 압축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6번 문항에서는 ‘절대 아니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에 대부분 답했지만, 흉악범 수사과정이나 데모 진압과정 등에서 공권력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2.17로 2005년의 성구매자 평균값과는 거의 일치했지만, 일반 남성의 평균 2.60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4-3〉 폭력에 대한 합리화 수준 및 허용도 분포

문 항	절대 아니다 (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652 (50.4)	395 (30.5)	186 (14.4)	51 (3.9)	10 (0.8)	1.74	1	2.17	2.17	2.60
2. 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685 (53.0)	412 (31.9)	151 (11.7)	39 (3.0)	5 (0.4)	1.66	1			
3. 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623 (48.2)	394 (30.4)	189 (14.6)	80 (6.2)	8 (0.6)	1.81	1			
4. 흉악범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사용은 용인될 수 있다	362 (28.0)	272 (21.0)	256 (19.8)	285 (22.1)	117 (9.1)	2.63	1			
5. 데모 진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무력사용은 불가피하다	228 (17.6)	301 (23.3)	396 (30.6)	305 (23.6)	64 (4.9)	2.75	3			
6.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284 (22.0)	407 (31.5)	400 (30.9)	174 (13.5)	27 (2.1)	2.42	2			

4. 가정 및 학교폭력 허용도

〈표 4-4〉는 아래의 4개 문항을 요인 ‘가정 및 학교폭력 허용도’로 압축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1번 문항은 가정 및 학교에서의 체벌 허용도, 2번 문항은 학교내의 체벌 허용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가지 문항 모두 ‘그저그렇다’가 최빈값이었으며,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아동 체벌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3번과 4번 문항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허용 척도로 최빈값이 ‘절대아니다’로 나타나 아동폭력 및 체벌 허용도에 비해 훨씬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 평균은 2.23으로 2005년의 성구매자 평균값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일반 남성의 평균 2.48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4-4〉 가정 및 학교폭력 허용도 분포

문 항	절대 아니다 (1)	별로 그렇지 않다(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최빈값	전체 평균	2005년 연구 (평균)	
									존스쿨 대상	일반 남성
1.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옛말은 일리가 있다	181 (14.0)	250 (19.3)	385 (29.7)	371 (28.7)	107 (8.3)	2.98	3	2.23	2.22	2.48
2. 필요하다면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239 (18.5)	354 (27.4)	371 (28.7)	262 (20.3)	66 (5.1)	2.66	3			
3. “여편네와 북어는 두들길수록 맛이 난다”는 옛말은 일리가 있다	598 (46.2)	478 (36.9)	177 (13.7)	35 (2.7)	6 (0.5)	1.74	1			
4. 때로는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가정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	774 (59.8)	375 (29.0)	127 (9.8)	17 (1.3)	1 (0.1)	1.53	1			

V 성구매자의 성매매 경험 분석

1. 성구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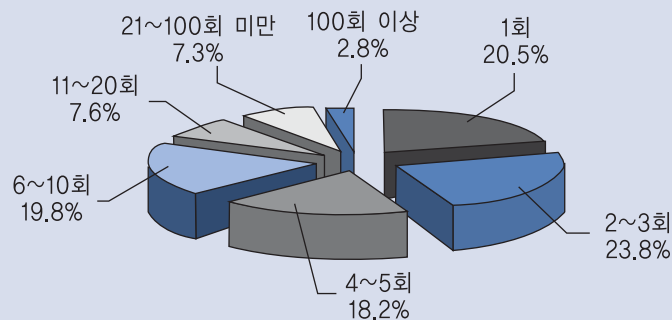
가. 성구매 총 횟수

〈표 5-1〉은 성구매자의 일생 동안 성구매 총 횟수 분포를 제시한 것으로, 성구매 경험이 1~2회인 자의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고, 본 처분 외에는 성구매 경험이 없다고 답한 자의 비율도 20%를 넘었으며, 전체 성구매자의 82.3%가 자신의 성구매 경험이 10회 이내 라고 답했다. 그리고, 설문에 응한 1,221명 대상자의 평균 성구매 횟수는 약 16회(15.82)였으며, 2005년 연구 결과 존스쿨 대상자와 일반 남성 중 성구매 경험이 있는 자의 평균 성구매 횟수는 각각 11.1회와 14.6회로 나타났다.

〈표 5-1〉 성구매 총 횟수 분포

성구매 총 횟수	빈 도	백분율(%)
1 회	251	20.5
2~3회	290	23.8
4~5회	222	18.2
6~10회	242	19.8
11~20회	93	7.6
21~100회 미만	89	7.3
100회 이상	34	2.8
합 계	1,221	100

최초 성구매 총 횟수 분포



나. 최초 성구매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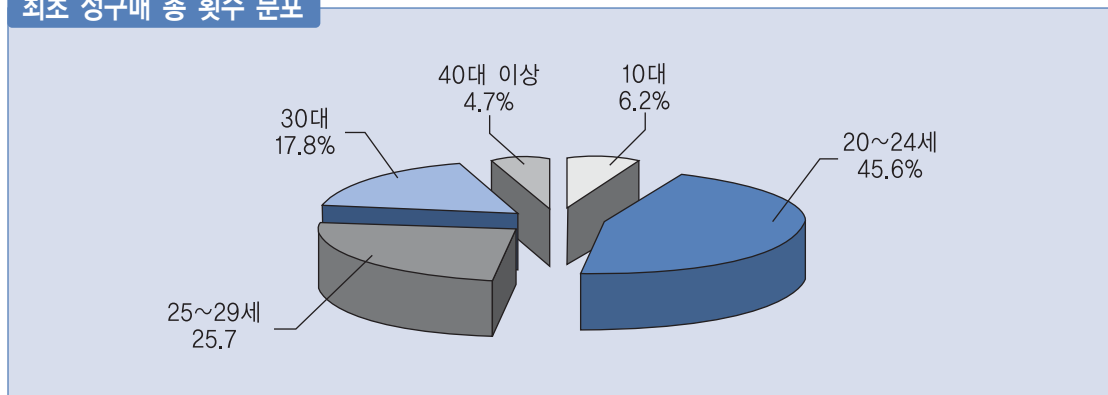
〈표 5-2〉는 돈을 주고 최초로 성관계를 경험한 만나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본 분석과 2005년 연구 모두에서 최초 성구매 시점이 '20대' 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 남성 성구매자가 존스쿨 대상자에 비해 20대에 최초 성구매한 비율이 높고 30대와 40대에 최초 성구매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일반 남성 성구매자가 존스쿨 대상자보다 결혼 적령기의 기혼 비율⁵⁾이 다소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 최초 성구매 시점 분포

최초 성구매 시점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10대	78	6.2	37(7.5)	37(15.1)
20~24세	571	45.6	372(75.5)	201(81.7)
25~29세	322	25.7		
30대	223	17.8	67(13.6)	6(2.4)
40대 이상	58	4.7	17(3.4)	2(0.8)
합 계	1,252	100	493(100)	246(100)

최초 성구매 총 횟수 분포



5) 2005년 연구의 일반 남성 성구매자 중 30대의 기혼율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본 분석의 설문에 응한 30대 성구매자의 기혼 비율이 49.3%에 지나지 않음.

다. 최초 성구매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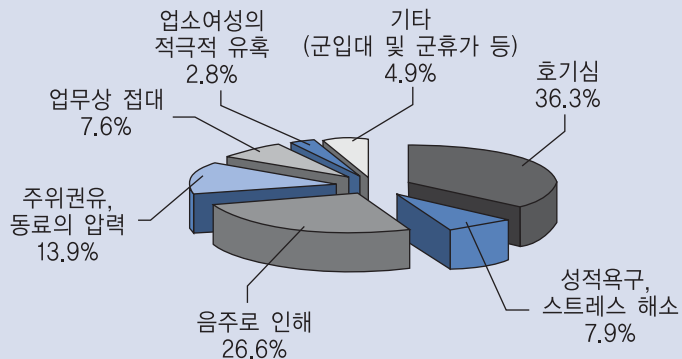
〈표 5-3〉은 최초 성구매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 성구매 동기가 호기심인 경우가 3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음주 26.6%, 주위의 권유, 동료의 압력 13.9%순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 순위는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호기심 다음으로 주위의 권유나 동료의 압력이 음주로 인한 성구매 동기보다 높았다.

〈표 5-3〉 최초 성구매 계기 분포

최초 성구매 계기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호기심	469	36.3	224(44.4)	112(44.6)
성적욕구, 스트레스 해소	102	7.9	59(11.7)	27(10.8)
음주로 인해	343	26.6	103(20.4)	33(13.1)
주위권유, 동료의 압력	179	13.9	61(12.1)	65(25.9)
업무상 접대	98	7.6	23(4.6)	7(2.8)
업소여성의 적극적 유혹	36	2.8	22(4.4)	4(1.6)
기타(군입대 및 군휴가등)	63	4.	12(2.4)	3(1.2)
합 계	1,290	100	504(100)	251(100)

최초 성구매 총 횟수 분포



라. 성구매 경험 경로

〈표 5-4〉는 경로별로 성구매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안마시술소에서 성구매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이 5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창가 54.5%, 유흥주점 44.7% 순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의 안마시술소 경험 비율과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에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채팅 경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시점에서의 성매매 경로별 단속 비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의 존스쿨 대상자 중 36.8%가 안마시술소에서 성을 구매하여 본 처분을 받게 되었고, 2005년 연구 대상자 중 40.4%가 인터넷채팅을 통한 성구매로 인해 존스쿨 처분을 받게 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5-4〉 성구매 경험 경로 분포

경로	없음	있음	합계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사창가 (윤락가)	588 (45.5)	703 (54.5)	1,291 (100)	217 (43.1)	287 (56.9)	504 (100)	58 (22.7)	198 (77.3)	256 (100)
유흥주점 (룸살롱)	714 (55.3)	577 (44.7)	1,291 (100)	262 (52.0)	242 (48.0)	504 (100)	125 (48.8)	131 (51.2)	256 (100)
나이트클럽	1,212 (94.0)	78 (6.0)	1,290 (100)	466 (92.5)	38 (7.5)	504 (100)	219 (85.5)	37 (14.5)	256 (100)
티켓다방	1,245 (96.4)	46 (3.6)	1,291 (100)	460 (91.3)	44 (8.7)	504 (100)	239 (93.4)	17 (6.6)	256 (100)
노래방	1,188 (92.0)	103 (8.0)	1,291 (100)	465 (92.3)	39 (7.7)	504 (100)	225 (87.9)	31 (12.1)	256 (100)
퇴폐이발소	1,006 (78.0)	284 (22.0)	1,290 (100)	400 (79.4)	104 (20.6)	504 (100)	198 (77.3)	58 (22.7)	256 (100)
안마시술소	528 (40.9)	763 (59.1)	1,291 (100)	260 (51.6)	244 (48.4)	504 (100)	129 (50.4)	127 (49.6)	256 (100)
숙박시설	1,149 (89.0)	142 (11.0)	1,291 (100)	433 (85.9)	71 (14.1)	504 (100)	198 (77.3)	58 (22.7)	256 (100)
증기탕	1,192 (92.3)	99 (7.7)	1,291 (100)	453 (89.9)	51 (10.1)	504 (100)	232 (90.6)	24 (9.4)	256 (100)
찜질방	1,279 (99.1)	12 (0.9)	1,291 (100)	501 (99.4)	3 (0.6)	504 (100)	252 (98.4)	4 (1.6)	256 (100)
전화방	1,142 (88.5)	149 (11.5)	1,291 (100)	482 (95.6)	22 (4.4)	504 (100)	252 (98.4)	4 (1.6)	256 (100)
인터넷채팅	1,064 (82.4)	227 (17.6)	1,291 (100)	306 (60.7)	198 (39.3)	504 (100)	238 (93.0)	18 (7.0)	256 (100)
공원,거리	1,283 (99.4)	8 (0.6)	1,291 (100)	499 (99.0)	5 (1.0)	504 (100)	253 (98.8)	3 (1.2)	256 (100)
이벤트회사	1,262 (97.8)	29 (2.2)	1,291 (100)	491 (97.4)	13 (2.6)	504 (100)	254 (99.2)	2 (0.8)	256 (100)

마. 성구매 경로 순위

〈표 5-5〉는 주된 성구매 경로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본 분석과 2005년 연구의 비교 집단 모두에서 성구매 경로 1순위는 성매매 집결지인 사창가였고, 2순위는 안마시술소로 분석되었다.

〈표 5-5〉 성구매 경로 순위 분포

경로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본 분석	2005년 연구		본 분석	2005년 연구		본 분석	2005년 연구	
		존스쿨 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존스쿨 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존스쿨 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사창가 (윤락가)	374 (29.6)	152 (30.8)	104 (47.3)	156 (16.9)	55 (15.6)	22 (11.5)	116 (18.2)	38 (15.2)	23 (16.2)
유흥주점 (룸살롱)	248 (19.6)	108 (21.9)	55 (25.0)	193 (20.9)	78 (22.0)	52 (27.2)	106 (16.6)	37 (14.8)	17 (12.0)
나이트클럽	9 (0.7)	8 (1.6)	8 (3.6)	18 (2.0)	7 (2.0)	5 (2.6)	23 (3.6)	9 (3.6)	18 (12.7)
티켓다방	9 (0.7)	12 (2.4)	2 (0.9)	12 (1.3)	12 (3.4)	6 (3.1)	11 (1.7)	6 (2.4)	7 (4.9)
노래방	13 (1.0)	6 (1.2)	2 (0.9)	32 (3.5)	11 (3.1)	11 (5.8)	29 (4.6)	11 (4.4)	8 (5.6)
퇴폐이발소	64 (5.1)	22 (4.5)	11 (5.0)	83 (9.0)	26 (7.3)	17 (8.9)	83 (13.0)	25 (10.0)	13 (9.2)
안마시술소	350 (27.7)	69 (14.0)	28 (12.7)	265 (28.8)	91 (25.6)	55 (28.8)	113 (17.7)	50 (20.0)	29 (20.4)
숙박시설	39 (3.1)	10 (2.0)	6 (2.7)	28 (3.0)	14 (3.9)	14 (7.3)	40 (6.3)	16 (6.4)	17 (12.0)
증기탕	12 (1.0)	5 (1.0)	2 (0.9)	29 (3.1)	11 (3.1)	7 (3.7)	26 (4.1)	13 (5.2)	4 (2.8)
찜질방	1 (0.1)	1 (0.2)	0	5 (0.6)	0	0	3 (0.5)	0	1 (0.7)
전화방	44 (3.5)	5 (1.0)	0	36 (3.9)	4 (1.1)	0	41 (6.4)	2 (0.8)	0
인터넷채팅	87 (6.9)	89 (18.1)	2 (0.9)	54 (5.9)	40 (11.3)	1 (0.5)	44 (6.9)	42 (16.8)	3 (2.1)
공원,거리	1 (0.1)	1 (0.2)	0	0	1 (0.3)	1 (0.5)	1 (0.2)	0	1 (0.7)
이벤트회사	12 (1.0)	5 (1.0)	0	11 (1.2)	5 (1.4)	0	2 (0.3)	1 (0.4)	1 (0.7)
합계	1,263 (100)	493 (100)	220 (100)	922 (100)	355 (100)	191 (100)	638 (100)	250 (100)	142 (100)

바. 성구매의 주된 계기

〈표 5-6〉은 성구매의 주된 계기를 나타낸 것으로, 설문에 응한 성구매자로 하여금 성구매의 주된 이유 3가지씩을 고르도록 하여 각각의 성구매 계기마다 ‘없음’과 ‘있음’으로 구분한 뒤, 전체적으로 성구매의 주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최초 성구매의 주된 계기는 본 분석과 비교 집단인 2005년의 연구 결과 모두에서 ‘호기심’이 ‘음주’보다 10~30p 이상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성구매 경험을 통해서 성구매의 주요 계기가 된 것은 ‘음주’가 6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호기심 44.2%, 성적욕구나 스트레스 해소 40.1%, 업무상 접대 28.0%순으로 나타났다.

성구매의 주된 계기로써 음주가 지배적인 현상은 2005년 연구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술 권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고, OECD 국가 중 1인당 음주 소비량이 1위로 나타나는 등의 그릇된 음주 행태가 성 문제에까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업무상 접대’ 또한 성구매의 주된 계기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음주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5-6〉 성구매의 주된 계기 분포

계 기	없음	있음	합계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없음	있음	합계	없음	있음	합계
호기심	721 (55.8)	572 (44.2)	1,293 (100)	234 (46.2)	273 (53.8)	507 (100)	128 (49.0)	133 (51.0)	261 (100)
성적욕구, 스트레스해소	774 (59.9)	519 (40.1)	1,293 (100)	264 (52.1)	243 (47.9)	507 (100)	154 (59.0)	107 (41.0)	261 (100)
음주	495 (38.3)	798 (61.7)	1,293 (100)	221 (43.6)	286 (56.4)	507 (100)	117 (44.8)	144 (55.2)	261 (100)
주위권유, 동료의 압력	992 (76.7)	301 (23.3)	1,293 (100)	410 (80.9)	97 (19.1)	507 (100)	154 (59.0)	107 (41.0)	261 (100)
업무상 접대	931 (72.0)	362 (28.0)	1,293 (100)	387 (76.3)	120 (23.7)	507 (100)	207 (79.3)	54 (20.7)	261 (100)
업소여성의 적극적 유혹	1,146 (88.6)	147 (11.4)	1,293 (100)	440 (86.8)	67 (13.2)	507 (100)	240 (92.0)	21 (8.0)	261 (100)

사. 성구매의 댓가 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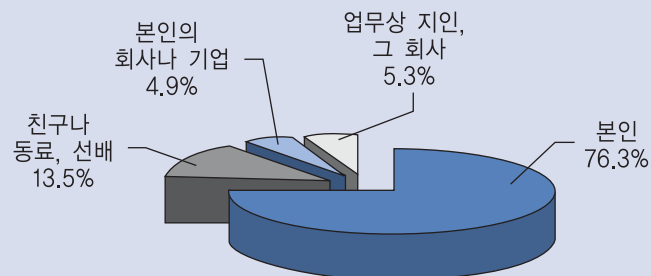
〈표 5-7〉은 성구매시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76.3%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동료, 선배가 부담하는 비율이 13.5%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경우 친구나 동료, 선배 등이 성구매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41.7%로 존스쿨 대상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래 표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성구매 비용 부담의 주체가 본인 외에 공공연히 친구나 동료, 선배는 물론, 성구매자의 직장, 혹은 업무상 관련자 등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구매가 남성 전유의 그릇된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장 생활의 연장선상으로도 뿌리내리고 있는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5-7〉 성구매의 댓가 지불 분포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2005년 분석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본인	967	76.3	395(78.8)	123(48.4)
친구나 동료, 선배	171	13.5	70(14.0)	106(41.7)
본인의 회사나 기업	62	4.9	14(2.8)	13(5.1)
업무상 지인, 그 회사	67	5.3	22(4.4)	12(4.7)
합계	1,267	100	501(100)	254(100)

성구매 댓가 지불 분포



아. 성구매 주요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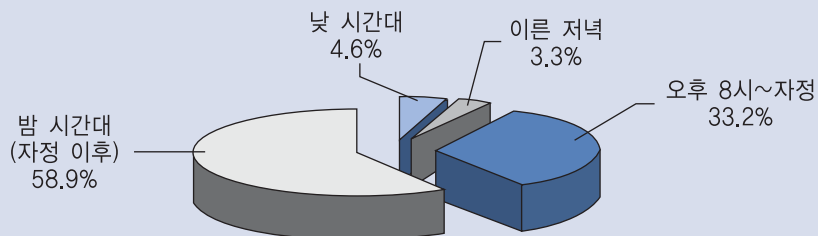
〈표 5-8〉은 성구매의 주요 시간대를 나타낸 것으로 자정 이후 성구매한 비율이 58.9%로 가장 높았고, 오후 8시 이후에서 자정 이전까지의 비율이 33.2%로 뒤를 이었다. 성구매의 약 92%가 오후 8시부터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오후 8시부터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성구매 비율이 96%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8〉 성구매 주요 시간대 분포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2005년 분석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낮 시간대	59	4.6	22(4.4)	5(2.0)
이른 저녁	42	3.3	26(5.2)	5(2.0)
오후8시~자정	421	33.2	167(33.5)	57(22.6)
밤 시간대(자정 이후)	747	58.9	284(56.9)	185(73.4)
합 계	1,269	100	499(100)	252(100)

성구매 주요 시간대 분포



2. 성병감염 및 성관계시의 특성

가. 성병감염 경험

〈표 5-9〉는 성구매로 인한 성병 감염 경험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21.2%가 성병 감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교 집단인 2005년 연구에서는 존스쿨 대상자의 25.4%,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19.5%가 성병 감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성병감염 경험 분포

감염 여부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없 음	1,012	78.8	375(74.6)	207(80.5)
있 음	273	21.2	128(25.4)	50(19.5)
합 계	1,285	100	503(100)	257(100)

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시 콘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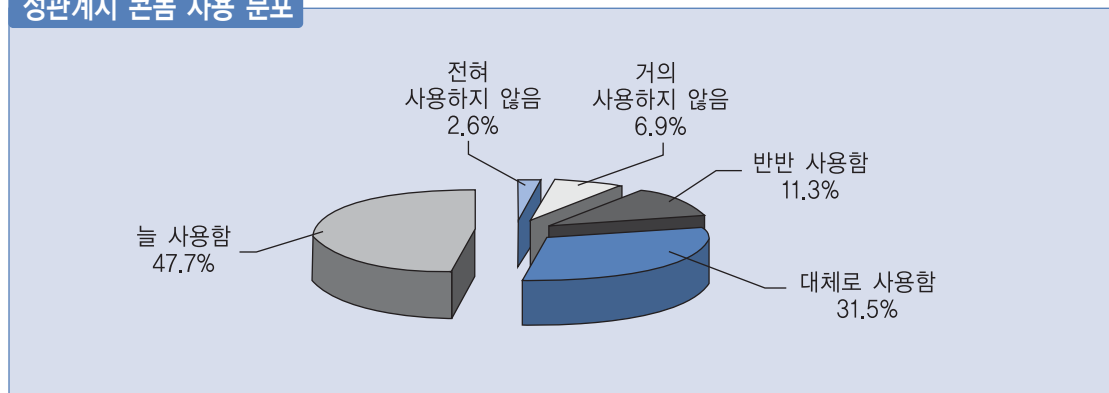
〈표 5-10〉은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시 콘돔 사용 여부와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늘 사용함’으로 답한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체로 사용함’ 31.5%, ‘반반 사용함’ 11.3%순으로 나타났으며, 콘돔 사용의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9.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5년 연구의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존스쿨 대상자에 비해 콘돔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성관계시 콘돔 사용 분포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2005년 분석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전혀 사용하지 않음	33	2.6	21(4.2)	17(6.6)
거의 사용하지 않음	89	6.9	50(9.9)	35(13.6)
반반 사용함	145	11.3	89(17.7)	52(20.2)
대체로 사용함	406	31.5	154(30.6)	67(26.0)
늘 사용함	614	47.7	189(37.6)	87(33.7)
합 계	1,287	100	503(100)	258(100)

성관계시 콘돔 사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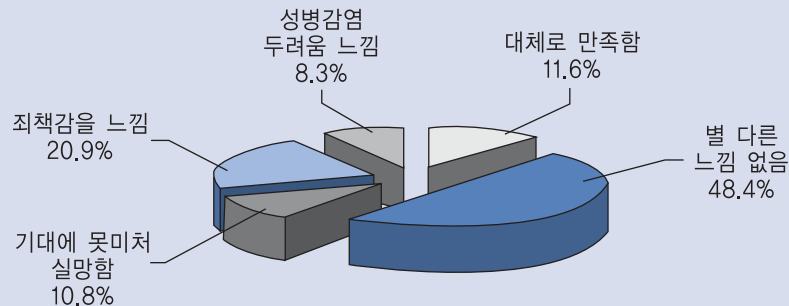
다.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직후 느낌

〈표 5-11〉은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직후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본 분석 및 2005년 비교 집단 중 존스쿨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느낌 없음’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죄책감을 느낌’, ‘대체로 만족함’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연구의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별다른 느낌 없음’ 다음으로 기대에 못미쳐 실망함 20.3%, ‘대체로 만족함’ 16.0%, ‘죄책감을 느낌’ 11.7%가 2~4번째 비율을 차지하여 존스쿨 대상자와는 성관계 직후 느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5-11〉 성관계 직후의 느낌 분포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대체로 만족함	145	11.6	75(14.9)	41(16.0)
별다른 느낌 없음	603	48.4	244(48.6)	102(39.8)
기대에 못미쳐 실망함	134	10.8	60(12.0)	52(20.3)
죄책감을 느낌	261	20.9	89(17.7)	30(11.7)
성병감염 두려움 느낌	103	8.3	34(6.8)	31(12.1)
합 계	1,246	100	502(100)	256(100)

성관계 직후의 느낌 분포



3.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관련

가.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인지 여부

〈표 5-12〉는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40.4%가 성구매 당시 관련 법 시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 분석 결과인 26.7%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 남성 성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함’으로 답한 비율 9.3%와는 더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분석 대상인 성구매자들이 자기 방어적 태도로 설문에 응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표 5-12〉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인지 여부 분포

인지 여부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인지하지 못함	521	40.4	135(26.7)	24(9.3)
인지함	769	59.6	370(73.3)	234(90.7)
합 계	1,290	100	505(100)	258(100)

나.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행동 변화⁶⁾

〈표 5-13〉은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행동 변화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고,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도 23.4%로 나타났으며, 5%는 적발가능성이 낮은 성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했고, 해외 성구매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위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변화없음’으로 답한 비율이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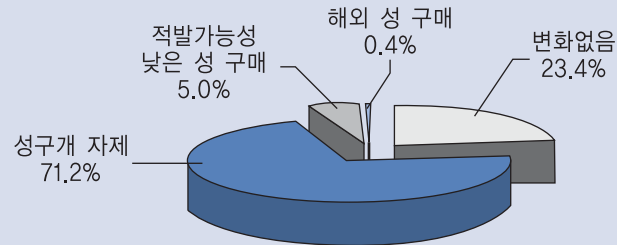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할 당시 존스쿨 대상자에게 심리적 위하력이 작용했을 개연성과 성구매로 인해 처벌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 남성들의 성구매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도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6) 〈표 3-45〉에서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 5-13〉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행동 변화 분포

응답 범주	빈 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변화없음	173	23.4	58(16.0)	121(53.5)
성구매 자제	526	71.2	277(76.5)	93(41.2)
적발가능성 낮은 성구매	37	5.0	25(6.9)	12(5.3)
해외 성구매	3	0.4	2(0.6)	0
합 계	739	100	362(100)	226(100)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행동 변화 분포



다.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이유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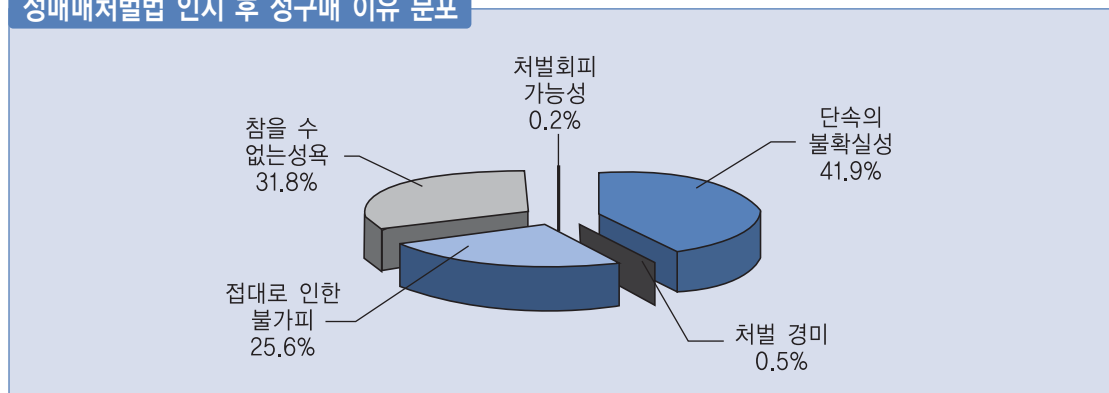
〈표 5-14〉에서는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에도 성구매를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단속의 불확실성’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참을 수 없는 성욕’ 31.8%, ‘접대로 인한 불가피’ 25.6%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속의 불확실성보다 성욕을 성구매의 더 큰 이유로 들었고, 일반 남성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성욕보다는 접대관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본 분석 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표 5-14〉 성매매처벌특별법 인지 후 성구매 이유 분포

응답 범주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단속의 불확실성	224	41.9	101(34.3)	38(49.3)
처벌 경미	3	0.5	3(1.0)	2(2.6)
접대로 인한 불가피	137	25.6	56(19.0)	20(26.0)
참을 수 없는 성욕	170	31.8	134(45.4)	17(22.1)
처벌회피 가능성	1	0.2	1(0.3)	0
합 계	535	100	295(100)	77(100)

성매매처벌법 인지 후 성구매 이유 분포



7) 〈표 3-45〉에서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라. 성매매처벌법 제정 후 성구매 경로별 이용률 및 평균빈도

〈표 5-15〉는 성매매처벌법 제정 후 성구매 경로별 이용률 및 평균 빈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안마시술소의 이용률과 평균 빈도가 48.3%, 1.02회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유흥주점으로 20.6%, 0.53회였으며, 사창가와 퇴폐이발소, 그리고, 인터넷채팅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 연구 결과에서도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의 이용률 및 평균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사창가가 단속의 주된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비교적 단속 가능성이 낮은 안마시술소 등이 성구매의 주요 이용 경로로 급부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 5-15〉 성매매처벌법 제정 후 성구매 경로별 이용률 및 평균빈도 분포

경로	구분	본 분석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일반남성 성구매자
노래방	경험빈도(비율)	46(3.6)	21(4.4)	13(14.6)
	평균빈도	0.07	0.06	0.39
유흥주점 (룸살롱, 나이트)	경험빈도(비율)	266(20.6)	121(25.2)	40(44.9)
	평균빈도	0.53	0.54	1.17
티켓다방	경험빈도(비율)	31(2.4)	34(7.1)	4(4.5)
	평균빈도	0.03	0.14	0.07
퇴폐이발소	경험빈도(비율)	206(16.0)	74(15.4)	26(29.2)
	평균빈도	0.41	0.31	0.79
안마시술소 (증기탕)	경험빈도(비율)	623(48.3)	173(36.0)	56(62.9)
	평균빈도	1.02	0.76	1.85
출장마사지	경험빈도(비율)	70(5.4)	18(3.8)	4(4.5)
	평균빈도	0.09	0.08	0.15
성매매집결지 (사창가, 여인숙)	경험빈도(비율)	214(16.6)	97(20.2)	25(28.1)
	평균빈도	0.37	0.40	0.82
전화방, 휴게방 (폰팅)	경험빈도(비율)	156(12.1)	23(4.8)	1(1.1)
	평균빈도	0.19	0.11	0.01
거리, 공원	경험빈도(비율)	4(0.3)	4(0.8)	2(2.2)
	평균빈도	0.003	0.01	0.02
결혼정보회사 (각종이벤트)	경험빈도(비율)	22(1.7)	13(2.7)	1(1.1)
	평균빈도	0.04	0.06	0.02
인터넷채팅	경험빈도(비율)	202(15.7)	189(39.4)	5(5.6)
	평균빈도	0.30	0.72	0.16
응답자수	-	1,290	480	89

4. 본 성구매 사건 관련

가. 성구매 경로

〈표 5-16〉은 본 성구매 사건과 관련하여 성구매 경로를 조사한 자료이다. 안마시술소의 비율이 36.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이 인터넷채팅 17.1%, 퇴폐이발소 11.2%, 전화방 10.8%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 성매매 경로였던 사창가와 유흥주점(룸살롱)은 각각 8.0%, 6.6%에 그쳤는데, 이는 성매매의 주요 경로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성매매처벌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단속 경로와 성구매 증거 확보 등 단속의 용이성 정도에 따른 결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5-16〉 성구매 경로 분포

성구매 경로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성매매 집결지(사창가)	97	8.0	35(7.3)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	80	6.6	49(10.1)
티켓다방	12	1.0	28(5.8)
노래방	5	0.4	6(1.2)
퇴폐이발소	136	11.2	43(8.9)
안마시술소	446	36.8	95(19.7)
숙박시설	62	5.1	8(1.7)
증기탕	9	0.7	5(1.0)
찜질방	3	0.3	1(0.2)
전화방	131	10.8	6(1.2)
인터넷채팅	208	17.1	195(40.4)
공원, 거리	2	0.2	3(0.6)
이벤트회사 등	22	1.8	9(1.9)
합 계	1,213	100	483(100)

나. 성구매 당시 음주 여부

〈표 5-17〉은 본 건의 성구매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73.5%가 음주 상태에서 성구매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2005년 연구 대상의 음주 비율 60.8%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표 5-6〉 성구매의 주된 계기 분포에서 61.7%가 음주로 인해 성구매를 하게 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성구매 당시 음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표 5-17〉 성구매 당시 음주 여부 분포

음주 여부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음주하지 않음	342	26.5	198(39.2)
음주함	947	73.5	307(60.8)
합 계	1,289	100	505(100)

다. 성구매 당시 동반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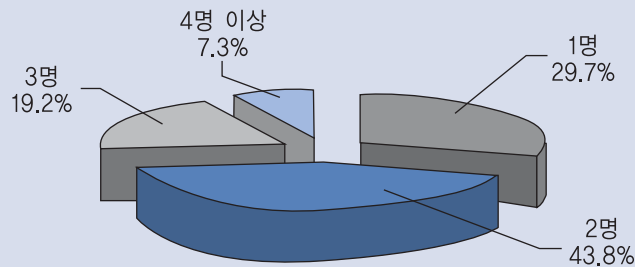
〈표 3-50〉은 성구매 당시 동반인원 분포를 제시한 것으로 동반자없이 혼자서 성구매한 898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동반인원이 2명인 경우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1명 29.7%, 3명 19.2%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반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도 7.3%(2005년 15.3%)로 나타나 단체 모임 후 집단으로 성구매를 하는 경우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18〉 성구매 당시 동반인원 분포

동반인원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1 명	113	29.7	22(18.6)
2 명	167	43.8	45(38.1)
3 명	73	19.2	33(28.0)
4명 이상	28	7.3	18(15.3)
합 계	381	100	118(100)

성구매 당시 동반인원 분포



라. 성구매시로부터 경찰 적발 시점까지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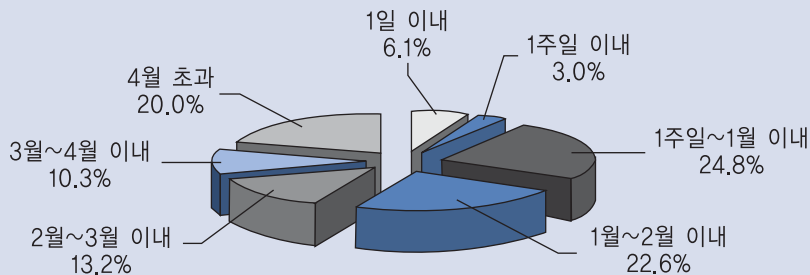
〈표 5-19〉는 성구매시로부터 경찰에 적발되기까지의 기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주일~1월 이내 기간이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1월~2월 이내가 22.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4월을 초과한 이후 경찰에 적발된 비율이 2005년의 연구 대상자의 동 기간대 비율보다 10p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신용카드 사용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의 확대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검찰 및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9〉 성구매시로부터 경찰 적발 시점까지의 기간 분포

기 간	빈도	백분율(%)	2005년 연구 존스쿨대상
1일 이내	75	6.1	78(17.2)
1주일 이내	37	3.0	
1주일~1월 이내	304	24.8	142(31.3)
1월~2월 이내	277	22.6	99(21.8)
2월~3월 이내	162	13.2	53(11.7)
3월~4월 이내	127	10.3	38(8.3)
4월 초과	245	20.0	44(9.7)
합 계	1,227	100	454(100)

성구매시로부터 경찰 적발 시점까지의 기간 분포



VI 존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1.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여기에서는 존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성구매 재범방지를 위하여 바뀌어야 할 고정관념, 즉, 성판매 및 구매를 정당화하거나 성매매의 해악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 성매매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게 된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관련성있는 문항을 한 데 묶어 「성매매 필요성 인지도 변화」, 「성매매 해악성 인지도 변화」, 「성매매 여성 자발성 인지도 변화」, 「성매매 여성 피해 인지도 변화」 등 네가지 요인으로 압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위의 네가지 요인에 포함된 항목들은 '1.절대아니다' 부터 '5.매우그렇다' 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대응되는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의 각 항목 평균값의 차이 정도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있어서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가. 성매매 필요성 인지도 변화

성판매 및 구매를 정당화하거나 성매매의 직업 인정, 국가의 개입 반대 등 성매매의 필요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대응표본 T-검정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래 7개 항목 중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5번의 사전 설문 평균값이 2.5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에 있었는데, 사후 설문 평균값은 2.5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

즉, '성매매의 직업 인정'과 '성매매가 정당한 거래 관계이며,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남자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교육 전에는 '그저그렇다' 라는 사고에서 교육 후 '별로 그렇지않다' 쪽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4번과 6번, 그리고 7번의 사전 설문 평균값은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사후 설문 평균값은 3 기준으로 왼쪽을 향하고 있다. 즉, '성매매가 없으면 강간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성매매를 할 수도 있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을 사는 것은 괜찮다' 라는 문항에서 교육 전 '그저그렇다' 에서 '대체로 그렇다' 쪽으로 약간 기운 상태가 교육 후 '그저그

8)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유무를 판단하는 통계적 검정 방법으로 '두 모집단의 평균간 차이는 없다' 라는 영가설과 '두 모집단의 평균간 차이가 있다' 라는 대립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통계적 검정 방법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이 있다. 이 중 교육 전과 후의 업무 효율성 검정이나 교육 효과성 분석 등은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한다. 두 모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로 나눈 값이 t 값인데, 이 t 값과 자유도에 따라 유의수준이 정해진다.

* 평균의 표준오차 : '표본오차' 라고도 하며, 전수 검사가 아닌 표본 추출 검사에서 다른 표본을 선택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평균값이 차이를 말한다.

* 자유도 : 총 개체수에서 값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개체수를 뺀 값으로 N-1 로 계산됨.

* 유의수준 : 통상 0.05(95%), 0.01(99%), 0.001(99.9%)을 기준으로 하며, 표본 추출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신뢰 수준을 말한다.

렇다' 에서 '별로 그렇지않다' 쪽으로 기울기가 바뀐 상태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필요성 인지도 변화 측정 결과에서 존스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유의수준은 7개 항목 모두 $p<0.001$ 이었다.

한편,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존스쿨 대상자 교육 효과성 분석에서도 성매매 필요성 인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며, 단, 7번 문항의 유의수준이 $p<0.01$ 인 것만 본 분석과 차이가 있었다.

〈표 6-1〉 성매매 필요성 인지도 변화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 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1. 성매매는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전	2.88	1,294	1.139	0.617 (1.161)	0.032	19.102
	사후	2.27	1,294	1.202			$p<0.001$
2. 성매매는 돈을 주고 받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거래관계이다	사전	2.60	1,294	1.118	0.576 (1.093)	0.030	18.952
	사후	2.03	1,294	1.078			$p<0.001$
3. 성매매는 개인간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사전	2.74	1,288	1.122	0.552 (1.197)	0.033	16.549
	사후	2.19	1,288	1.168			$p<0.001$
4. 성매매가 없으면 강간이 증가할 것이다	사전	3.38	1,289	1.083	0.645 (1.168)	0.033	19.816
	사후	2.73	1,289	1.200			$p<0.001$
5. 성매매는 남자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사전	2.89	1,290	1.048	0.509 (1.083)	0.030	16.887
	사후	2.38	1,290	1.092			$p<0.001$
6.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	사전	3.24	1,289	1.011	0.586 (1.124)	0.031	18.712
	사후	2.66	1,289	1.125			$p<0.001$
7. 대부분 남자들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을 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전	3.17	1,290	1.002	0.295 (1.132)	0.032	9.369
	사후	2.88	1,290	1.120			$p<0.001$

나. 성매매 해악성 인지도 변화

성매매의 범죄성 및 위해성에 대한 인지 수준 변화를 검증한 결과, 1번과 2번, 그리고 3번 문항에서는 사후 설문 평균이 사전 설문보다 높아 평균의 대응차가 음수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전 성매매의 범죄성 및 해악성 인지 수준이 5점 척도 중 3점인 ‘그저그렇다’에 가까웠다가 교육 후 4점인 ‘대체로 그렇다’ 방향으로 전환하여 성매매의 범죄성 및 해악성에 대한 인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4번 ‘성매매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문항에서는 교육 전 평균이 2.46으로 5점 척도 중 2점인 ‘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3점인 ‘그저그렇다’ 방향으로 0.46만큼 기울어져 있었는데, 교육 후 평균은 2.12로 교육 전 평균보다 0.34만큼 ‘별로 그렇지 않다’ 방향으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 전, 성매매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는 사고에서 교육 후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위해성을 더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 전후의 성매매 해악성 인지 수준 분석 결과, 교육의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검증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은 4개 항목 모두 $p<0.001$ 로 나타났다.

2005년의 존스쿨 효과성 분석에서는 3번 문항 ‘성매매는 가족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가 0.05의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개 문항의 효과성은 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표 6-2〉 성매매 해악성 인지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1. 성매매는 범죄이다	사전	3.24	1,293	1.145	-0.309 (1.514)	0.042	-7.329
	사후	3.55	1,293	1.386			$p<0.001$
2. 성매매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전	3.28	1,293	1.049	-0.281 (1.361)	0.038	-7.418
	사후	3.56	1,293	1.217			$p<0.001$
3. 성매매는 가족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전	3.23	1,289	1.118	-0.698 (1.663)	0.046	-15.075
	사후	3.93	1,289	1.163			$p<0.001$
4. 성매매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	사전	2.46	1,289	1.038	0.344 (1.460)	0.041	-8.449
	사후	2.12	1,289	1.387			$p<0.001$

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발성 인지도 변화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했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성립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성매매 여성 자발성 인지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존스쿨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1번과 4번 문항의 교육 전 평균값은 ‘2. 별로 그렇지 않다’와 ‘그저그렇다’의 중앙값인 2.5에서 약간 ‘그저그렇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교육 후 ‘별로 그렇지 않다’ 쪽으로 각각 0.19, 0.57만큼 평균값이 전환하여 이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번과 3번 문항의 교육 전 평균값은 각각 3.15와 3.08로 ‘3. 그저그렇다’에서 ‘4. 대체로 그렇다’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 있었으나, 교육 후 평균값은 2.44와 2.39로 각각 0.71과 0.69만큼 ‘별로 그렇지 않다’ 방향으로 전환되어 있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발성 인지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 전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발성 인지도 변화 분석 결과, 4개 문항 모두에서 교육의 효과성이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도 0.001의 유의수준에서 교육 전후의 평균값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한편, 2005년의 연구에서는 1번 문항의 유의도가 $p<0.01(t=2.78)$ 로 나타나, 본 분석의 $p<0.001$ 보다 낮았다.

〈표 6-3〉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발성 인지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성립될 수 없다	사전	2.53	1,287	1.280	0.190 (1.381)	0.039	4.924
	사후	2.34	1,287	1.281			$p<0.001$
2.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	사전	3.15	1,290	0.969	0.702 (1.074)	0.030	23.496
	사후	2.44	1,290	1.048			$p<0.001$
3. 성매매 여성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다	사전	3.08	1,291	1.009	0.697 (1.147)	0.032	21.829
	사후	2.39	1,291	1.088			$p<0.001$
4.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생활을 위해 자신의 일을 즐긴다	사전	2.67	1,295	0.950	0.573 (1.383)	0.038	14.909
	사후	2.10	1,295	1.340			$p<0.001$

라.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 인지도 변화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에 의해 통제받거나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고,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이다'라는 인식에 대한 동의 수준이 사후 조사에서 높게 나타나, 존스쿨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3개 문항 모두에서 교육 전 평균값이 '3. 그저그렇다'와 '4. 대체로그렇다'의 중앙값인 3.5 이하를 나타냈지만, 교육 후 평균값은 각각 3.75, 3.69, 3.85로 '대체로그렇다'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매매 여성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피해자라는 생각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교육 전후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에서도, 3개 문항 모두의 유의수준이 $p<0.001$ 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2005년 존스쿨 효과성 분석에서의 2번 문항 '성매매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가 많다'의 경우에는 유의수준이 0.05에 미치지 못하여 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개 문항의 효과성은 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표 6-4〉 성매매여성에 대한 피해 인지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성매매 여성은 포주에 의해 성을 팔도록 강요받는다	사전	3.13	1,285	1.005	-0.623 (1.173)	0.033	-19.030
	사후	3.75	1,285	1.045			$p<0.001$
2. 성매매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가 많다	사전	3.41	1,290	0.942	-0.278 (1.103)	0.031	-9.065
	사후	3.69	1,290	0.956			$p<0.001$
3. 성매매 여성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이다	사전	3.38	1,293	0.947	-0.470 (1.839)	0.051	-9.194
	사후	3.85	1,293	1.745			$p<0.001$

2.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 변화

〈표 6-5〉는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표이다. '1. 전혀 나쁘지 않다' 부터 '5. 매우 나쁘다' 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문항 모두에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의 평균값 등이 긍정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문항마다 평균값이 모두 높게 전환되어 성매매에 대한 비난 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4개 문항 모두 0.001의 유의수준에서 교육 전과 후의 평균값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특히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비난도를 측정하기 위한 2번 문항은 교육 전의 평균값도 '대체로 나쁘다' 고 평가되었는데, 교육 후의 평균값은 4.53으로 0.40이 높아져 '매우 나쁘다' 로 인식이 전환되어 있다. 또한, 성매매 및 성구매에 대한 비난 수준을 묻는 3번과 4번 문항에서는 교육 전의 평균값이 각각 비슷하고 교육 후의 평균값도 각각 비슷한 수치를 보여 성판매 및 성구매에 대한 비난 정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005년의 연구에서도 4개 문항 모두에서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는데, 단, 4번 문항의 유의도는 $p<0.01(t=3.13)$ 로 본 분석보다 낮았다.

〈표 6-5〉 성매매 및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1. 성매매는 얼마나 나쁘니까?	사전	3.54	1,288	0.866	-0.450 (0.823)	0.023	-19.592
	사후	3.99	1,288	0.904			$p<0.001$
2.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은 얼마나 나쁘니까?	사전	4.12	1,290	0.865	-0.395 (0.836)	0.023	-16.990
	사후	4.52	1,290	0.743			$p<0.001$
3. 성을 파는 사람은 얼마나 나쁘니까?	사전	3.43	1,289	0.877	-0.410 (0.885)	0.025	-16.626
	사후	3.84	1,289	0.940			$p<0.001$
4. 성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나쁘니까?	사전	3.49	1,290	0.899	-0.360 (0.859)	0.024	-15.070
	사후	3.85	1,290	0.955			$p<0.001$

3.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 변화

〈표 6-6〉은 ‘성매매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표이다. ‘1. 피해자’, ‘2. 피해자 아님’ 등 2점 척도를 사용하여 아래의 6개 문항에 대해 각각 답하도록 하였다.

6개 문항 모두 공통적으로 성구매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은 물론, 지역사회, 성매매 여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 인지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다소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지도 변화는 6개 문항 모두에서 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검증되었고, 2005년의 연구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6-6〉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 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1. 성구매자 자신	사전	1.39	1,279	0.489	0.088 (0.486)	0.014	6.440
	사후	1.30	1,279	0.459			p<0.001
2. 성구매자의 배우자 또는 애인	사전	1.21	1,271	0.504	0.070 (0.521)	0.015	4.791
	사후	1.14	1,271	0.346			p<0.001
3. 성구매자 자녀들	사전	1.22	1,270	0.415	0.071 (0.403)	0.011	6.274
	사후	1.15	1,270	0.358			p<0.001
4. 지역사회	사전	1.48	1,263	0.500	0.157 (0.520)	0.015	10.719
	사후	1.33	1,263	0.469			p<0.001
5. 성매매 여성	사전	1.33	1,275	0.472	0.171 (0.483)	0.014	12.651
	사후	1.16	1,275	0.365			p<0.001
6. 모든 사람들	사전	1.54	1,257	0.500	0.156 (0.523)	0.015	10.572
	사후	1.39	1,257	0.487			p<0.001

4.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변화

〈표 6-7〉은 성매매 규제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표로, ‘1. 예’, ‘2.아니오’ 등 2점 척도를 사용하여 아래의 5개 문항에 대해 각각 답하도록 하였다.

5개 문항 모두 교육 전후 평균값이 1.1 미만으로 대부분이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번과 2번, 그리고 3번 문항은 0.001의 유의수준에서 교육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번과 5번 문항은 교육 전과 후의 평균값 차이가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없었다기보다는 성판매 및 성구매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교육 전부터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교육 후 인지도와의 차이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연구에서는 1번 문항만이 0.01의 유의수준에서 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나머지 4개 문항은 교육 전과 후의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 또한, 교육의 효과성 유무보다는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사전 인지도가 높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7〉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 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1. 우리 사회에서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전단지 등 광고행위는 불법인가요?	사전	1.09	1,288	0.305	0.047 (0.280)	0.008	5.962
	사후	1.04	1,288	0.204			p<0.001
2. 우리 사회에서 거리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사전	1.05	1,291	0.238	0.027 (0.243)	0.007	4.012
	사후	1.02	1,291	0.148			p<0.001
3. 우리 사회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성을 사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사전	1.05	1,290	0.212	0.029 (0.212)	0.006	4.859
	사후	1.02	1,290	0.135			p<0.001
4. 우리 사회에서 성을 파는 사람은 법률상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전	1.08	1,288	0.267	0.014 (0.305)	0.008	1.644
	사후	1.06	1,288	0.240			p=0.100
5. 우리 사회에서 성을 사는 사람은 법률상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전	1.03	1,287	0.178	0.006 (0.332)	0.009	0.671
	사후	1.02	1,287	0.307			p=0.502

5. 성매매의 위험성 및 손실 인지도 변화

가. 성매매의 위험성 인지도 변화

우리 사회에서 성구매를 할 경우, 피해를 받을 위험성에 대해 아래의 문항을 제시한 후 ‘1. 높다’, ‘2. 낮다’로 답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위험성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8개 문항 모두 0.001의 유의수준에서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7번, 8번 문항에서는 교육 전에도 ‘1. 높다’에 치우쳐 있었으나 교육 후 5개 문항 각각 약 0.04~0.06 정도 ‘1. 높다’ 쪽으로 기울기를 더했다. 또한, 4번과 5번, 그리고 6번 문항은 성구매로 인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교육 전에는 인지도 평균값이 ‘높다’와 ‘낮다’의 중앙점에서 ‘낮다’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어 성구매와 범죄 피해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나, 교육 후 ‘높다’ 방향으로 각각 0.10~0.13 정도 기울기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연구에서는 1, 2, 3번, 그리고 7, 8번 문항의 교육 전후 인지도가 모두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고, 범죄의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4, 5, 6번 문항 각각 0.01, 0.001, 0.05의 유의수준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표 6-8〉 성매매의 위험성 인지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1. 성병 감염 위험	사전	1.16	1,285	0.366	0.061 (0.362)	0.010	6.090
	사후	1.10	1,285	0.294			p<0.001
2. 적발로 인한 체포 위험	사전	1.35	1,283	0.480	0.057 (0.494)	0.014	4.126
	사후	1.30	1,283	0.457			p<0.001
3. 처벌받을 위험	사전	1.26	1,284	0.440	0.045 (0.453)	0.013	3.572
	사후	1.21	1,284	0.410			p<0.001
4. 강도 피해 위험	사전	1.63	1,281	0.486	0.114 (0.503)	0.014	8.116
	사후	1.52	1,281	0.500			p<0.001
5. 폭행 피해 위험	사전	1.61	1,280	0.491	0.126 (0.504)	0.014	8.931
	사후	1.48	1,280	0.500			p<0.001
6. 절도 피해 위험	사전	1.58	1,280	0.497	0.095 (0.490)	0.014	6.897
	사후	1.48	1,280	0.500			p<0.001
7. 가족관계 손상 위험	사전	1.18	1,285	0.387	0.044 (0.407)	0.011	3.909
	사후	1.14	1,285	0.344			p<0.001
8. 사회적 낙인과 사회생활 어려움	사전	1.25	1,283	0.435	0.064 (0.533)	0.015	4.292
	사후	1.19	1,283	0.487			p<0.001

나. 성매매로 인한 손실 인지도 변화

〈표 6-9〉는 ‘만약 내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이라는 질문에 아래의 5개 문항을 제시한 후 ‘1. 절대 아니다’, 부터 ‘5. 매우그렇다’ 까지 5점 척도에 답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해 다가올 손실 인지도 변화를 측정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표이다.

5개 문항 각각 교육 전 3.17~3.43의 평균값을 보였는데, 교육 후 3.50~3.75로 변화하여 5점 척도 중 3점인 ‘그저그렇다’ 에서 4점인 ‘대체로 그렇다’ 로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성구매로 인해 법적인 처벌과 함께 가족은 물론, 인간관계 등 사회생활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며, 통계적으로도 5개 문항 모두 0.001의 유의수준에서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표 6-9〉 성매매로 인한 손실 인지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1. 그 즉시 경찰에 적발될 것이다	사전	3.17	1,286	0.966	-0.330 (0.996)	0.028	-11.873
	사후	3.50	1,286	1.007			p<0.001
2.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전	3.43	1,285	0.983	-0.320 (0.971)	0.027	-11.813
	사후	3.75	1,285	0.975			p<0.001
3. 가족이나 친구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사전	3.35	1,285	1.060	-0.237 (1.109)	0.031	-7.650
	사후	3.58	1,285	1.120			p<0.001
4. 주위 사람들과 앞으로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전	3.32	1,286	1.084	-0.288 (1.053)	0.029	-9.803
	사후	3.60	1,286	1.090			p<0.001
5.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사전	3.43	1,286	1.108	-0.287 (1.071)	0.030	-9.604
	사후	3.71	1,286	1.108			p<0.001

6. 성문제의 자각 및 책임 수용도 변화

가. 성문제 인지도 변화

자신의 성경험과 성적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문제 인지도 변화를 대응표본 T-검정 결과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0.없다', '1.있다'로 답하게 함으로써 성문제 자각도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교육 전의 평균 0.12보다 오히려 교육 후의 평균이 약 0.05 낮은 0.07로 나타났다. 즉, 교육 전에 자신의 성경험과 성적 행태 등에 문제가 없다고 자각한 정도가 교육 후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자신에게 성문제가 없다고 자각한 변화 정도가 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교육 전과 후의 성문제 자각 평균이 각각 0.12와 0.08로 나타났으며,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어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했던 의도된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신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상태에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통해 그릇된 성행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향후 성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까지 염두하여 응답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성경험 및 성적 행태가 평균적인 남성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심리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10〉 성문제 인지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당신은 현재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전	0.12	1,286	0.363	0.047 (0.376)	0.010	4.519
	사후	0.07	1,286	0.267			p<0.001

나.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변화

아래 질문에 대해 ‘1. 확실히 그렇다’, ‘2. 아마도 그럴 것이다’,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4.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등 4점 척도를 이용하여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변화를 측정한 결과, 교육 전 평균값은 3.43으로 3점 척도인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와 4점 척도인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의 중앙값 3.5 아래 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교육 후 평균값은 3.53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방향으로 0.10만큼 이동하였다. 이는 교육 후 성구매 가담 의지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0.001의 유의수준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2005년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수료 후 성구매 가담 의지에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표 6-11〉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 항	시기	평균	N	표준 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당신은 성구매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	3.43	1,285	0.649	-0.100 (0.588)	0.016	-6.119
	사후	3.53	1,285	0.633			p<0.001

다.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 변화

아래 질문에 대해 ‘1. 책임(유죄)을 인정한다’, ‘2. 무죄이다’, ‘3. 기타’ 등 3점 척도를 이용하여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교육 전 평균값 1.26에 비해 교육 후 평균값은 1.22로 나타나 프로그램 수료 후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교육 전과 후의 책임 수용도 차이가 있다고 검증되었다.

교육 전 본 처분에 대해 ‘무죄’라고 응답한 비율은 11.1%였으나, 교육 후에는 9.2%로 줄었으며, ‘기타’ 응답은 교육 전과 후 각각 7.5%, 6.2%로 나타났는데, 기타 응답의 대부분은 ‘잘못은 인정하나 억울하다’ 혹은 ‘성구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유죄 적용은 너무 심하다’ 등이었다.

한편, 2005년의 연구에서는 교육 전후의 책임 수용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표 6-12〉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 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당신은 본 사건으로 인해 성구매자로 처 분된 데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 니까?, 아니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	1.26	1,267	0.588	0.041 (0.648)	0.018	2.254
	사후	1.22	1,267	0.651			p<0.05

라. 본 처분에 대한 적절성 인식 변화

본 처분에 대한 적절성 인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 질문에 대하여 ‘1. 미약함’, ‘2. 적절함’, ‘3. 과중함’, ‘4. 기타’ 등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전 평균값 2.28에 비해 교육 후 평균값은 2.19로 나타나 프로그램 수료 후 본 처분에 대한 인식이 ‘적절함’ 방향으로 0.09만큼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0.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그러나, 2005년의 연구에서는 교육 전후의 처분에 대한 적절성 인식 변화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13〉 본 처분에 대한 적절성 인식 변화(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기	평균	N	표준 편차	대응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유의도
성구매 행위에 대해 당신이 받은 본 처분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전	2.28	1,279	0.531	0.095 (0.518)	0.014	6.526
	사후	2.19	1,279	0.481			p<0.001

VII 존스쿨 실시기관별 프로그램 비교평가 분석

1.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강사의 선정

가. 프로그램의 구성

존스쿨의 주요 프로그램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탈성매매 여성 증언, 그리고, 성매매와 신체·정신건강, 소시오드라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탈성매매 여성 증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구매자가 성매매처벌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성매매의 불법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 및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성매매와 신체·정신건강, 소시오드라마 등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신체와 정신에 가할 위험성을 자각하게 하고 성매매 행위와 성중독과의 관련성은 물론, 성매매 행위가 성매매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구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나. 강사의 선정

소시오드라마 등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강사로 초빙하였고, 성매매 관련 여성단체 소속 전문 강사는 물론, 여성단체 등의 지원으로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한 탈성매매 여성을 강사로 선정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 성구매자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와의 공감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등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성구매자의 재범 방지 제고를 위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2. 기관별 프로그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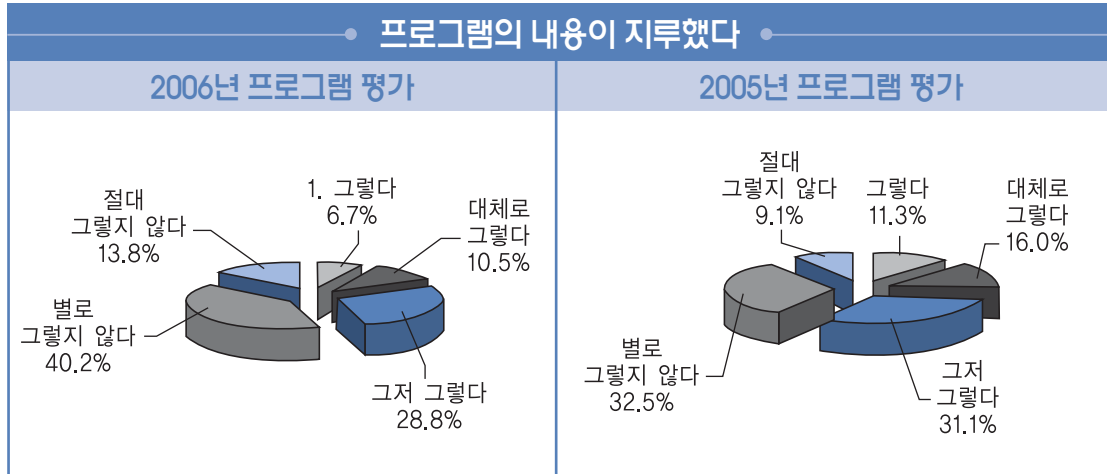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존스쿨 대상자가 자신이 수료한 프로그램의 내용 편성, 진행 과정, 강사에 대한 평가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평가를 내리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가. 기관별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1. 그렇다' 부터 '5. 절대 그렇지 않다' 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답하게 함으로써 기관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하였다. 전체 평균은 3.44로 3점 척도인 '그저 그렇다' 로부터 4점 척도인 '별로 그렇지 않다' 쪽으로 0.44만큼 기울어 있으며, 이는 2005년 비교집단의 평균 3.12에 비해 0.32만큼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지루함의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로는 대구와 부천이 각각 4.07과 3.72로 높게 나타났고, 안산과 대전, 그리고 서울이 각각 3.04와 3.06, 그리고 3.25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7-1〉 기관별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기 관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루했다					합 계	평 균
	1.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절대 그렇지 않다		
서울	10(8.1%)	13(10.6%)	48(39.0%)	40(32.5%)	12(9.8%)	123(100%)	3.25
인천	7(6.7%)	12(11.6%)	24(23.1%)	46(44.2%)	15(14.4%)	104(100%)	3.48
수원	3(3.5%)	8(9.4%)	23(27.1%)	43(50.6%)	8(9.4%)	85(100%)	3.53
춘천	-	1(10.0%)	3(30.0%)	4(40.0%)	2(20.0%)	10(100%)	3.70
대전	5(7.3%)	9(13.1%)	35(50.7%)	17(24.6%)	3(4.3%)	69(100%)	3.06
청주	3(4.4%)	12(17.7%)	19(27.9%)	22(32.4%)	12(17.6%)	68(100%)	3.41
대구(안동)	2(1.9%)	1(0.9%)	13(12.4%)	61(58.1%)	28(26.7%)	105(100%)	4.07
부산	7(9.9%)	7(9.9%)	24(33.8%)	19(26.7%)	14(19.7%)	71(100%)	3.37
창원	1(2.0%)	10(20.4%)	11(22.5%)	21(42.9%)	6(12.2%)	49(100%)	3.43
광주	3(8.6%)	3(8.6%)	6(17.1%)	15(42.9%)	8(22.8%)	35(100%)	3.63
전주	3(7.5%)	1(2.5%)	12(30.0%)	18(45.0%)	6(15.0%)	40(100%)	3.58
제주	-	-	7(50.0%)	7(50.0%)	-	14(100%)	3.50
서울남부	2(2.9%)	5(7.1%)	17(24.3%)	34(48.6%)	12(17.1%)	70(100%)	3.70
의정부	4(9.3%)	3(7.0%)	11(25.6%)	20(46.5%)	5(11.6%)	43(100%)	3.44
울산	-	2(20.0%)	2(20.0%)	3(30.0%)	3(30.0%)	10(100%)	3.70
서울서부	3(6.2%)	7(14.6%)	18(37.5%)	14(29.2%)	6(12.5%)	48(100%)	3.27
성남	2(4.4%)	6(13.0%)	11(23.9%)	24(52.2%)	3(6.5%)	46(100%)	3.43
부천	-	3(8.3%)	11(30.6%)	15(41.7%)	7(19.4%)	36(100%)	3.72
안산	27(16.5%)	16(9.8%)	60(36.6%)	46(28.0%)	15(9.1%)	164(100%)	3.04
서울동부	3(5.0%)	8(13.3%)	12(20.0%)	28(46.7%)	9(15.0%)	60(100%)	3.53
서울북부	1(2.5%)	8(20.0%)	5(12.5%)	22(55.0%)	4(10.0%)	40(100%)	3.50
합 계	86(6.7%)	135(10.5%)	372(28.8%)	519(40.2%)	178(13.8%)	1,290(100%)	3.44
2005년 연구결과	41(11.3%)	58(16.0%)	113(31.1%)	118(32.5%)	33(9.1%)	363(100%)	3.12



나. 기관별 프로그램의 진행 평가⁹⁾

프로그램의 진행이 매끄러웠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 후 ‘1. 그렇다’부터 ‘5. 절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답하게 함으로써 기관별 프로그램의 진행을 평가하였다. 전체 평균은 2.53으로 2점 척도인 ‘대체로 그렇다’와 3점 척도인 ‘그저 그렇다’의 중앙값 2.5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존스쿨 대상자 분석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평가 평균값 2.93에 비해 0.40만큼 ‘대체로 그렇다’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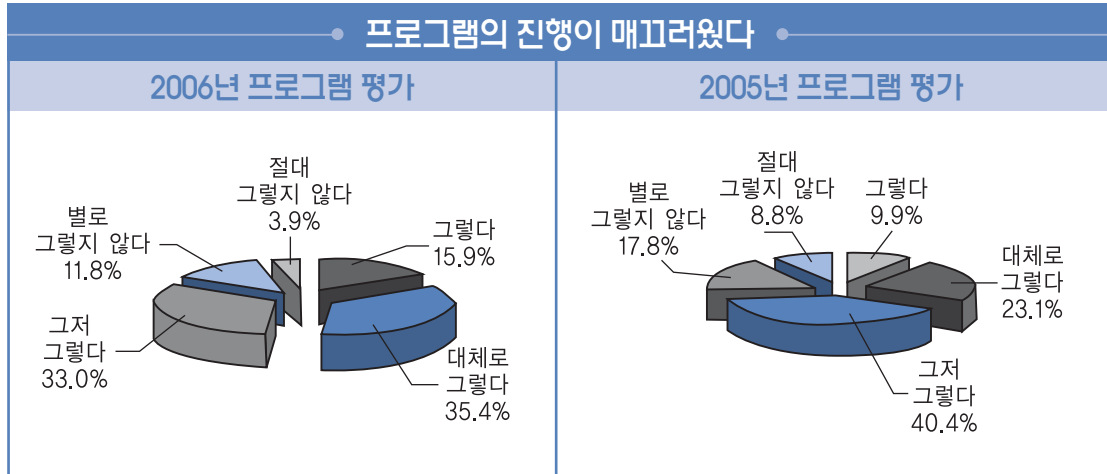
기관별 프로그램 진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와 수원이 각각 2.07과 2.32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안산과 대전이 각각 2.91과 2.78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별 프로그램 진행 평가 결과는 <표 5-1>의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 평가 결과와도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구가 두 가지 평가 모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안산과 대전이 다른 기관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또한, 두 가지 평가 모두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2006년 한해 존스쿨 대상 건수가 가장 많았던 안산과 서울의 업무량과도 관련성있을 것으로 보인다.

9) 프로그램의 진행 평가에 있어서 울산이 2.00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제주가 2.86으로 대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울산과 제주의 설문지 분석 대상 건수가 각각 10건과 14건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음.

〈표 7-2〉 기관별 프로그램의 진행 평가

기 관	프로그램의 진행이 매끄러웠다					합 계	평 균
	1.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절대 그렇지 않다		
서울	12(9.8%)	39(31.7%)	54(43.9%)	14(11.4%)	4(3.2%)	123(100%)	2.67
인천	20(19.3%)	41(39.4%)	31(29.8%)	7(6.7%)	5(4.8%)	104(100%)	2.38
수원	12(14.1%)	43(50.6%)	21(24.7%)	9(10.6%)	-	85(100%)	2.32
춘천	3(30.0%)	2(20.0%)	3(30.0%)	1(10.0%)	1(10.0%)	10(100%)	2.50
대전	5(7.3%)	17(24.6%)	38(55.1%)	6(8.7%)	3(4.3%)	69(100%)	2.78
청주	14(20.6%)	25(36.8%)	22(32.3%)	5(7.4%)	2(2.9%)	68(100%)	2.35
대구(안동)	29(27.6%)	51(48.6%)	15(14.3%)	9(8.6%)	1(0.9%)	105(100%)	2.07
부산	13(18.3%)	17(24.0%)	25(35.2%)	11(15.5%)	5(7.0%)	71(100%)	2.69
창원	10(20.4%)	18(36.8%)	13(26.5%)	7(14.3%)	1(2.0%)	49(100%)	2.41
광주	10(29.4%)	10(29.4%)	8(23.5%)	4(11.8%)	2(5.9%)	34(100%)	2.35
전주	9(22.5%)	12(30.0%)	16(40.0%)	2(5.0%)	1(2.5%)	40(100%)	2.35
제주	1(7.1%)	2(14.3%)	9(64.3%)	2(14.3%)	-	14(100%)	2.86
서울남부	11(15.7%)	33(47.1%)	13(18.6%)	9(12.9%)	4(5.7%)	70(100%)	2.46
의정부	6(13.9%)	16(37.2%)	11(25.6%)	7(16.3%)	3(7.0%)	43(100%)	2.65
울산	3(30.0%)	4(40.0%)	3(30.0%)	-	-	10(100%)	2.00
서울서부	7(14.6%)	15(31.3%)	16(33.3%)	10(20.8%)	-	48(100%)	2.60
성남	4(8.7%)	14(30.4%)	20(43.5%)	7(15.2%)	1(2.2%)	46(100%)	2.72
부천	5(13.9%)	15(41.6%)	14(38.9%)	1(2.8%)	1(2.8%)	36(100%)	2.39
안산	14(8.5%)	40(24.4%)	70(42.7%)	27(16.5%)	13(7.9%)	164(100%)	2.91
서울동부	11(18.3%)	22(36.7%)	16(26.7%)	9(15.0%)	2(3.3%)	60(100%)	2.48
서울북부	6(15.0)	20(50.0%)	7(17.5%)	5(12.5%)	2(5.0%)	40(100%)	2.42
합 계	205(15.9%)	456(35.4%)	425(33.0%)	152(11.8%)	51(3.9%)	1,289(100%)	2.53
2005년 연구결과	36(9.9%)	84(23.1%)	147(40.4%)	65(17.8%)	32(8.8%)	364(100%)	2.93



다. 기관별 프로그램의 강사 평가¹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열정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 후 '1. 그렇다' 부터 '5. 절대 그렇지 않다' 까지 5점 척도로 답하게 함으로써 기관별 프로그램의 강사를 평가하였다. 전체 평균은 2.07로 2점 척도인 '대체로 그렇다'에 치우쳐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의 강의가 대체적으로 열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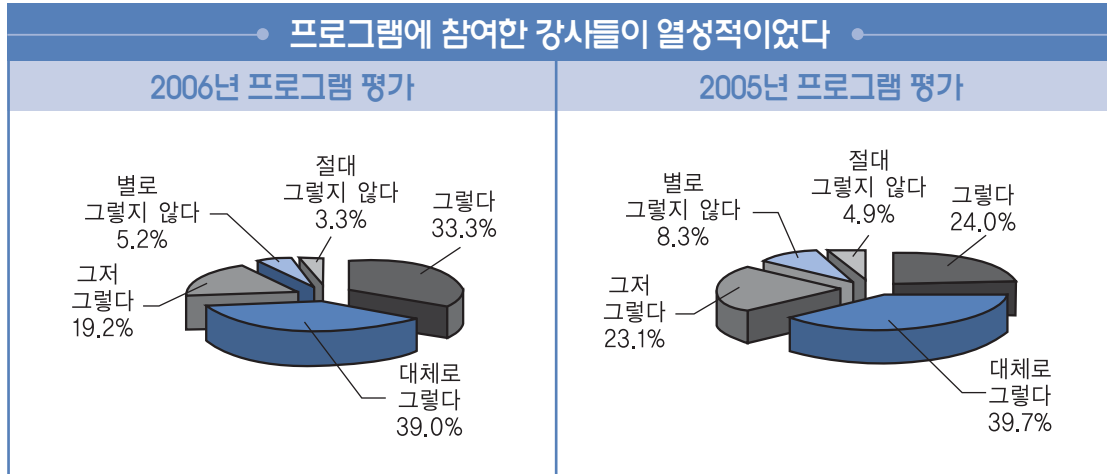
2005년 연구 결과의 강사 평가 평균값 2.31에 비해 0.24만큼 '대체로 그렇다' 방향으로 기울어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의 열정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프로그램 강사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가 1.51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은 광주 1.65, 서울서부 1.83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산은 2.48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대전과 서울도 각각 2.35와 2.31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기관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 평가 결과 또한, <표 7-1>의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 평가 결과 및 <표 7-2>의 기관별 프로그램 진행 평가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안산과 서울 등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등 공통된 결과를 보였다.

10) 프로그램의 강사 평가에 있어서 춘천과 울산이 각 1.50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설문지 분석 대상 건수가 각 10건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음.

〈표 7-3〉 기관별 프로그램의 강사 평가

기 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열성적이었다					합 계	평 균
	1.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그저 그렇다	4.별로 그렇지 않다	5.절대 그렇지 않다		
서울	31(25.2%)	49(39.9%)	30(24.4%)	10(8.1%)	3(2.4%)	123(100%)	2.31
인천	35(33.6%)	40(38.5%)	20(19.2%)	3(2.9%)	6(5.8%)	104(100%)	2.09
수원	25(29.4%)	41(48.2%)	17(20.0%)	1(1.2%)	1(1.2%)	85(100%)	1.96
춘천	6(60.0%)	3(30.0%)	1(10.0%)	-	-	10(100%)	1.50
대전	13(18.8%)	27(39.1%)	22(31.9%)	6(8.7%)	1(1.5%)	69(100%)	2.35
청주	26(38.2%)	24(35.3%)	13(19.1%)	4(5.9%)	1(1.5%)	68(100%)	1.97
대구(안동)	65(61.9%)	32(30.5%)	4(3.8%)	2(1.9%)	2(1.9%)	105(100%)	1.51
부산	17(24.0%)	27(38.0%)	21(29.6%)	5(7.0%)	1(1.4%)	71(100%)	2.24
창원	16(32.6%)	21(42.9%)	8(16.3%)	4(8.2%)	-	49(100%)	2.00
광주	22(64.7%)	6(17.7%)	3(8.8%)	2(5.9%)	1(2.9%)	34(100%)	1.65
전주	14(35.0%)	12(30.0%)	10(25.0%)	2(5.0%)	2(5.0%)	40(100%)	2.15
제주	3(21.4%)	6(42.9%)	4(28.6%)	1(7.1%)	-	14(100%)	2.21
서울남부	21(30.0%)	37(52.8%)	7(10.0%)	3(4.3%)	2(2.9%)	70(100%)	1.97
의정부	13(30.2%)	18(41.9%)	6(13.9%)	2(4.7%)	4(9.3%)	43(100%)	2.21
울산	6(60.0%)	3(30.0%)	1(10.0%)	-	-	10(100%)	1.50
서울서부	19(39.6%)	21(43.7%)	5(10.4%)	3(6.3%)	-	48(100%)	1.83
성남	13(28.3%)	25(54.3%)	7(15.2%)	-	1(2.2%)	46(100%)	1.93
부천	14(38.9%)	15(41.6%)	5(13.9%)	1(2.8%)	1(2.8%)	36(100%)	1.89
안산	30(18.3%)	61(37.2%)	47(28.7%)	16(9.7%)	10(6.1%)	164(100%)	2.48
서울동부	27(45.0%)	17(28.3%)	11(18.3%)	2(3.4%)	3(5.0%)	60(100%)	1.95
서울북부	13(32.5%)	18(45.0%)	6(15.0%)	-	3(7.5%)	40(100%)	2.05
합 계	429(33.3%)	503(39.0%)	248(19.2%)	67(5.2%)	42(3.3%)	1,289(100%)	2.07
2005년 연구결과	87(24.0%)	144(39.7%)	84(23.1%)	30(8.3%)	18(4.9%)	363(100%)	2.31



라. 기관별 프로그램의 주제 평가¹¹⁾

1) 가장 흥미로운 주제

기관별로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 및 성매매의 실태와 성매매가 성매매 당사자간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탈성매매 여성 증언 등을 중심으로 다룬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이 서울, 부산, 안산 등 9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존수쿨 대상자에 의해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로 선정되었다. 토론과 역할극 등을 통해 강의를 진행한 ‘소시오드라마’가 대전과 서울남부 등 6개 기관에서 선정되었고, 성병의 심각성과 감염 경로, 그리고 예방책 등을 다룬 성병관련 주제가 인천과 수원 등 5개 기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로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에서는 다른 기관과는 차별적인 주제를 다뤘는데, 스트레스가 그릇된 음주 습관 및 성구매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 제시,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 올바른 자기관리 및 통제 능력 등 성매매의 근원을 개인적인 문제에서 다룸으로써 가장 흥미있는 주제로 선정되었다.

각 기관별로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와 흥미로웠다고 판단한 이유를 <표 7-4>에 제시하였다.

11) 기관별로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있었던 주제와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주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관마다 프로그램의 편성 및 주제 선정에 차이가 있어 주제별 비율을 기관별로 비교, 제시하지 않았음.

〈표 7-4〉 기관별 프로그램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

기 관	주 제 명	선택 이유
서 울	사이버 성매매의 범죄성 인식 및 자기 통제력 강화	사이버를 통한 성매매 확산 실태 인식, 때와 장소의 제약이 약하여 접근이 용이한 사이버 성매매에 대해 범죄성을 인식하고 자기 통제력 강화를 통한 대처법 인지
인 천	성매매와 AIDS	성병에 대한 구체적 인지 및 심각성 인식의 계기
수 원	성매매와 성병	성매매 여성의 직접 증언으로 흥미 유발, AIDS 에 관한 피상적 지식 탈피, 성병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인지
춘 천	소시오드라마	토론을 통한 직접 참여 및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대 전	소시오드라마	직접 참여, 의견공유, 역할극을 통한 객관적 자기발견, 타인과 공감
청 주	에이즈 예방교육	성병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 습득 및 이해, 가족 및 타인의 건강 침해 가능성 공감
대구(안동)	생존자 증언	성매매 여성 당사자의 증언으로 현실감을 느끼고 성매매 여성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신뢰감 형성, 성구매 가해행위임을 인식함
부 산	남성 문화속의 성매매	우리 사회 성문화의 실태와 문제점과 인식,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시각 전환의 계기
창 원	한국 남성의 성문화, 성중독 및 자기통제 활동	강사의 열정적 강의 및 성의있는 준비, 한국 남성의 그릇된 성문화가 정착된 배경 이해
광 주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자기관리 능력 인지,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 인식으로 스트레스가 음주 및 성구매로 이어지는 경로 차단 계기
전 주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성매매 여성의 고통 및 피해 실태를 실감하고 성매매의 범죄성과 문제점을 인식함
제 주	소시오드라마	직접 참여 형식, 역할극을 통한 상대 이해의 계기
서울남부	소시오드라마	잘못된 성상식을 깨닫고 건전한 성관념을 정립하게 됨
의정부	정보화와 성매매/성매매의 해악	성병의 경로 및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 적시,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주제로 유용한 정보 습득, 성매매 여성의 피해 실태 등 인지
울 산	소시오드라마	토론을 통한 자유 의견 개진 등
서울서부	AIDS	AIDS 등 성병 경로 이해, 심각성을 통해 경각심 갖게 됨
성 남	성매매 인지 수정	성문화 및 성산업의 실태 실감, 성매매의 비도덕적, 반인륜적 측면 이해, 성매매 여성의 고통 인식, 성매매가 인신매매 등의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근원 인식, 강사의 설득력
부 천	소시오드라마	능동적 참여, 역할극을 통한 피해자의 입장 이해
안 산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성매매처벌법 관련 법규 이해, 구체적 강의, 강사의 설득력 등
서울동부	성매매와 신체건강	피상적 지식에 대한 구체적 접근, 성관계를 단순한 쾌락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신체 건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인식
서울북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성매매 당사자 여성의 경험담을 통한 교육 효과 높임, 성매매의 해악성에 대한 사고 전환의 계기

2)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주제

각 기관별로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주제와 해당 주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강사의 여성 편향적, 독선적, 배타적, 그리고 성구매자에 대한 인격 모독성 태도로 반감을 자극하는 등 강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이 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효과성을 저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표 7-5〉 기관별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주제

기 관	주 제 명	선택 이유
서 울	왜곡된 성인식과 정신건강	성매매 여성의 입장 및 피해의식만을 강조하는 독선적 강의
인 천	성매매와 정신건강	강사의 여성 편향적 태도, 주제를 벗어난 남녀평등만을 강조하여 강의에 거부감 느낌
수 원	성매매와 성병	자발적 성판매 여성은 거의 없다는 전제는 억지, 성매매 여성 전체가 피해자라는 주장은 무리, 상식 수준의 강의
춘 천	성매매와 성병	강의의 내용이 상식 수준에 그침, 강사의 전문적 식견 필요
대 전	소시오드라마	성매매에 대한 성찰효과 없음, 피교육생간의 공감유도는 무리, 사회적 현실과 괴리된 내용으로 설득력 낮음, 조서받는 느낌
청 주	성매매의 해악성과 생존자 증언	구시대적 접근, 여성의 입장만 일방적 대변, 교육취지 무색
대구(안동)	생존자 증언	강의 능력 부족, 공감 안됨
부 산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피교육자에 대한 직선적 자존심 묵살, 편견과 감정에 사로잡혀 교육 효과 반감, 반발심 유발, 객관성없는 강사의 자질의심
창 원	성매매의 실태	여성 편향, 범죄자 취급으로 자존심 상함, 거부감, 악덕 성매매 업주 관련 내용에 강 의가 편중되어 교육 효과 낮음
광 주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여성 편향적, 독선적, 성매매 여성의 피해 중심 강의로 거부감 유발, 교육의 효과 저해
전 주	소시오드라마	자발적,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강사의 능력 부족으로 강의 진행이 매우 어색함, 현실성 없음, 피교육생을 정신병자 취급
제 주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상식 수준의 내용으로 일관
서울남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성구매자에 대한 지나친 매도와 성매매 여성의 피해의식만 고취하는 일방적,감정적 접근으로 자존심과 반발심을 자극하는 등 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의정부	성의식 점검 및 결혼과 성	상식 수준의 강의로 일관, 참신성과 설득력 부족
울 산	탈성매매 여성의 증언	강사 선택의 신중 요함, 증언 중 짜증을 내거나 피교육생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여 교육의 취지가 퇴색됨
서울서부	VTR 시청(성매매 피해자)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접한 내용으로 신선감이 부족, 설득력을 기대할 수 없음
성 남	성매매의 도덕성과 건강	범죄자 취급, 여성 편향적, 강사의 전문성과 포용력 부족
부 천	소시오드라마	피교육생의 협조 유도 무리, 현장 검증하는 듯한 수치심 유발, 오히려 참여가 불편, 형식적
안 산	소시오드라마	지루함, 핵심없음, 강사의 자질 의심,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에 응답한 136명 중 78명이 소시오드라마를 선정, 흥미있는 주제에 답한 141명 중 단 2명만이 소시오드라마를 선정했음
서울동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일방적, 성매매 여성의 피해 실태 및 고충에만 집중
서울북부	소시오드라마	피교육자에 대한 배려 및 이해 부족, 인격 비하, 수치심 자극, 객관성과 포용력을 갖춘 강사 선정 필요

마. 기관별 프로그램의 유익성 평가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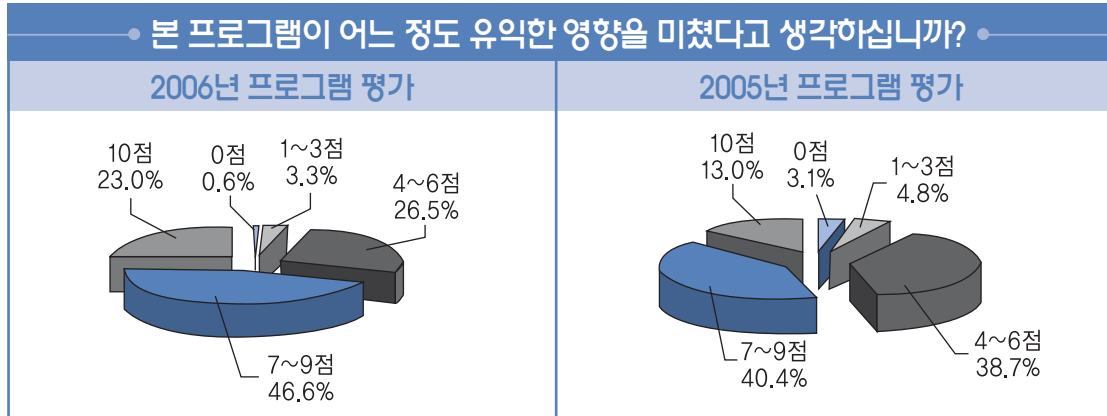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유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0. 전혀 유익하지 않다' 부터 '10. 매우 유익했다' 까지 11점 척도를 아래와 같이 5개 단위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7.41로 7~9점 사이인 '어느 정도 유익성이 있다' 는 부분에 위치해 있었으며, 2005년의 연구 결과에 비해 0.88만큼 유익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대구와 서울동부가 각각 8.42와 8.33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전, 안산, 서울이 각각 5.92, 6.44, 7.14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기관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 그리고 강사의 평가 결과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표 7-6〉 기관별 프로그램의 유익성 평가

기 관	본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합 계	평 균
	0점	1-3점	4-6점	7-9점	10점		
서울	1(0.9%)	1(0.9%)	39(33.3%)	55(47.0%)	21(17.9%)	117(100%)	7.14
인천	0	4(3.9%)	31(29.8%)	51(49.0%)	18(17.3%)	104(100%)	7.22
수원	0	4(4.7%)	19(22.4%)	43(50.6%)	19(22.3%)	85(100%)	7.52
춘천	0	0	2(20.0%)	3(30.0%)	5(50.0%)	10(100%)	8.60
대전	2(3.2%)	4(6.5%)	35(56.4%)	16(25.8%)	5(8.1%)	62(100%)	5.92
청주	0	2(3.1%)	14(21.9%)	32(50.0%)	16(25.0%)	64(100%)	7.63
대구(안동)	0	2(1.9%)	9(8.7%)	49(47.6%)	43(41.8%)	103(100%)	8.42
부산	1(1.4%)	3(4.2%)	15(21.1%)	34(47.9%)	18(25.4%)	71(100%)	7.42
창원	1(2.0%)	1(2.0%)	14(28.6%)	18(36.8%)	15(30.6%)	49(100%)	7.45
광주	0	1(2.9%)	10(28.6%)	15(42.8%)	9(25.7%)	35(100%)	7.60
전주	0	0	13(32.5%)	16(40.0%)	11(27.5%)	40(100%)	7.68
제주	0	0	5(35.7%)	8(57.2%)	1(7.1%)	14(100%)	6.79
서울남부	0	0	7(10.3%)	48(70.6%)	13(19.1%)	68(100%)	7.97
의정부	0	0	11(26.8%)	25(61.0%)	5(12.2%)	41(100%)	7.51
울산	0	0	3(30.0%)	3(30.0%)	4(40.0%)	10(100%)	8.00
서울서부	0	2(4.3%)	9(19.1%)	20(42.6%)	16(34.0%)	47(100%)	7.85
성남	0	0	4(8.5%)	34(72.3%)	9(19.2%)	47(100%)	8.11
부천	0	1(2.8%)	12(33.3%)	14(38.9%)	9(25.0%)	36(100%)	7.36
안산	3(1.9%)	11(7.1%)	65(41.7%)	54(34.6%)	23(14.7%)	156(100%)	6.44
서울동부	0	1(1.7%)	9(15.0%)	28(46.7%)	22(36.6%)	60(100%)	8.33
서울북부	0	4(10.0%)	8(20.0%)	21(52.5%)	7(17.5%)	40(100%)	7.25
합 계	8(0.6%)	41(3.3%)	334(26.5%)	587(46.6%)	289(23.0%)	1,259(100%)	7.41
2005년 연구결과	11(3.1%)	17(4.8%)	137(38.7%)	143(40.4%)	46(13.0%)	354(100%)	6.53

12) 프로그램의 유익성 평가에 있어서 춘천이 8.60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주가 6.79로 서울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춘천과 제주의 설문 분석 대상 건수가 각각 10건과 14건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음.



3.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개선 방안

가. 성구매를 하려고 하는 친구나 동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향후 성구매를 하고자 하는 친구나 동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존스쿨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인지한 성매매의 실태, 성매매 여성의 피해 사례, 그리고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등을 인식시켜 그릇된 성관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성매매는 성매매 당사자간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전하고 건전한 음주, 오락문화,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등을 통해 자기 통제 및 조절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구매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나. 소감 및 개선 방안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강의 진행 과정 등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성구매자의 소감과 개선방안 검토 결과를 기관별로 내용을 요약하여 <표 7-7>에 제시하였다. <표 7-4>와 <표 7-5>에서 제시한 내용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좋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길다’, ‘지루하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이 약 80%에 이르러,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의 실태를 인식하고 성에 대한 건전한 사고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바람직한 소감도 많았지만, 향후 프로그램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개선방안을 주로 제시하였다.

〈표 7-7〉 기관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개선방안

기 관	소감 및 개선방안
서울	여성인권 문제 강의에 집중되어 성구매 방지를 유도하기에는 부적절, 여성단체의 시간만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강의의 객관성이 상실되어 교육의 취지도 무색하게 함
인천	일방적인 정보전달 등 주입식 교육보다 피교육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피교육자에 대한 악 감정을 절제없이 표출하는 강사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며 강사의 인격 및 자질과 전문성이 의심됨
수원	인신매매자 수준으로 매도하는 여성 강사 배제, 강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중요, 수강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회사 등으로 프로그램 확대 실시
춘천	소시오드라마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대전	인신매매 등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를 전통적 성매매 장소인 사창가로 집중하여 인신매매, 감금 등을 다루는 태도는 극히 진부한 강의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안 제시가 없고, 피교육생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
청주	피교육자의 인격과 수준을 폄하한 교육 진행, 프로그램 내용이 상식 수준이며, 고루하고 진부한 시각에서 진행됨, 오감을 통해 반응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 필요
대구(안동)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 탈피, 인식 전환의 계기, 건전한 성 사고방식 정립, 강사들의 여성 편향적 태도 시정, 남자강사 확대, 존스쿨 교육을 일반기업,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
부산	탈성매매 여성 증언 강사가 교육생을 비방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반감이 극대화되어 동정의 여지도 못느낌, 향후 강사 선정시 검증 철실, 급진화한 제재보다 점진적 대응방안 모색이 더 필요
창원	성매매 처벌법의 취지 및 목적 이해, 교육 대상 너무 많아 효과성 저해, 일방적,감정적,인격 모독성 발언, 여성 편향적인 강사 배제 필요, 강사들간 강의내용 중복 사전 검토
광주	성매매 여성을 옹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수준의 강사의 편협한 안목으로는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성매매 여성 재활을 위한 정부의 대책 필요
전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범국민으로 교육 대상 확대
제주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논리와 개혁을 내세워 현실성이 약하며, 성구매 의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이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함
서울남부	여성 강사의 대부분이 피교육생의 인격을 비하하는 등 반감을 느끼게 함
의정부	지나치게 성매매 여성 미화, 성구매자에 대한 매도 등 극단적, 독선적 강의 개선 요함
울산	피교육자의 나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자유토론 확대
서울서부	주말,휴일집행, 인격 모독성 강의 자제, 성매매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강의 확대
성남	성매매와 인간존엄성, 인권유린과의 관련성을 깨달음, 적정인원 등 교육환경 개선, 야간 및 주말 집행,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성 대변자 같은 독선적, 배타적 강사 교체
부천	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 강간 등 흉악범 취급하거나 인격 비하하는 자극적 언어 사용 자제,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하려면 프로그램 수준 및 강사 자질 검토
안산	토론 및 참여가 주되는 프로그램 진행, 여성편향적,남녀평등에 집중한 강사의 자질개선
서울동부	토론식 진행 확대, 탈성매매 여성 증언 강사의 자질 개선 및 검증 후 강의 진행 요함, 피교육생에 대한 지나친 매도성 강의는 교육생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집중력을 흐림
서울북부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전반 교육 확대, 피교육자에 대한 이해없는 강사는 배제, 다른 강사와의 강의 주제 및 내용 중복

VIII 결론 및 제언

먼저 이번 존스쿨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집필한 ‘2005년 법무부용역 연구보고서」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개발」의 분석 대상이 되었던 2005년 존스쿨 수료자 509명과 성구매 경험자 262명을 포함한 일반 남성 448명을 비교 집단으로 제시하였다는 점과 분석 년도, 분석대상 추출 방식, 분석대상 건수 등이 상이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단순히 분석 결과의 빈도와 평균값만을 참고적으로 비교, 제시하였으며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검증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총론에서 성매매처벌특별법의 시행 취지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성매매 산업이 새로이 등장하는 가운데 성매매 행위가 오히려 확산되어 가고 있고, 성매매를 개인 간의 거래관계로 당연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씌워서 성판매 및 성구매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성매매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존스쿨 프로그램 실시와 동 프로그램의 분석 목적은 성구매자의 그릇된 성관념으로부터 건전한 성인식 및 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성구매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개인 특성, 성적 행태 및 성중독 위험도, 성매매 경험,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프로그램 평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실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구매 행위의 재발 방지를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와 분석을 통해 검증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및 진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및 개인관련 특성 분석 결과이다. 혼인 형태, 직업, 종교, 생활수준, 음주 습관, 범죄경력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연구의 비교 집단인 일반 남성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성매매가 어떤 특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에서만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전유 유흥문화의 왜곡된 형태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성정체성 및 성역할에 대한 인지도, 법의식 수준 및 폭력허용도, 자아특성 및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성매매 경험 등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 남성과 비교하여 성구매자만이 갖는 부정적인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관념, 법의식 및 폭력허용 인지 수준, 알코올 및 성중독 위험도, 성적 행태 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문항들을 검증한 결과, 오히려 2005년 연구의 비교 집단인 일반 남성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성구매자가 설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방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형태로 자기를 제시할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교육 전과 후의 공통 문항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매매 및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 성매매의 위험성 및 손실 인지도, 성문제의 자각 및 책임 수용도 등 모든 요인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단, 성매매 처벌법 인지도 변화를 측정한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은 0.05의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교육 전후의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2개 문항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법률상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의 효과성이 없었다기보다는 교육 전 이미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5년 연구의 존스쿨 대상자 분석 결과, 성매매 해악성 인지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 인지도, 성매매 처벌법 인지도, 향후 성구매 가담 의지, 본 처분에 대한 책임 수용도와 적절성 인식 등 9개 문항에서 교육의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는데, 본 분석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성매매 처벌법 인지도 관련 2개 문항을 제외한 7개 문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효과성이 공통으로 검증된 문항에서의 유의수준도 본 분석의 결과가 2005년의 비교 집단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된 문항 수는 물론, 유의수준에 있어서도 2005년의 존스쿨 분석에 비해 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존스쿨 프로그램이 최초로 실시된 2005년에 비해, 2006년도의 프로그램 편성, 진행, 강사의 선정, 그리고 프로그램 담당관 및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질적인 향상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된다.

넷째, 존스쿨 대상자에 의해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한 후, 이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 강사, 유익성 등 전 분야에서 2005년의 연구 결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기관별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서는 최상위와 최하위 평가 기관간의 평균값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 내용 등 4가지 항목의 기관별 평가에서 항목별 최상위 기관이 일치했고, 항목별 최하위 기관도 일치했다.

교육 대상 인원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확보, 교육시설,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 거리 등 지역별·기관별 여건 차이도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프로그램 기획과 강사 선정의 신중성,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상의 문제점 검토 등을 통해 기관별 평가 차이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기관별 프로그램 주제 평가와 수료 후 소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역할극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확대되었으며, 성매매와 성병이 성매매 당사자간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왜곡된 성관념 및 성경험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또한, 존스쿨 프로그램을 처벌 수단으로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각 기관·단체와 기업, 심지어는 일반인과 학교의 교육으로까지 개방하여 확대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취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한편, 존스쿨 대상자에 의한 주제 평가 및 개선방안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은 강사의 선정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매매 경로가 안마시술소, 인터넷 채팅, 퇴폐이발소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진행 상 성매매의 경로 및 실태를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사창가로 집중 조명하고 있어 성구매자가 처한 다양한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설득력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강사가 객관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강의 내용과 방식이 여성 편향적·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피교육생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함은 물론, 교육의 취지조차 퇴색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강사 선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의 주를 이루고 있다.

〈표 7-4〉와 〈표 7-5〉를 살펴보면, 같은 주제가 기관에 따라 가장 흥미있는 주제가 되기도 하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주제로 선정되기도 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결정짓는 것은 주제 자체가 아니라,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사의 전문성과 자질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강사의 주제 전달 방식과 강의 태도 등을 담당관 및 담당자가 청강하거나 대상자의 설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강의 진행 방식을 강사와 담당관이 수시로 협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강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존스쿨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와 수료 후 소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항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특히 본 분석과 같은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던 200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보다도 효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진행 기관이 교육 주기별로 대상자의 설문 내용을 검토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구매자의 재범방지라는 존스쿨 프로그램의 취지와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 근절 의지에 부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필진						
총괄	법 보	무 관	부 과	과	장	손 외 철
기획 및	법 보	무 관	부 과	사 무 책 임	관 송 중 문 회	일 갑
편집	보호관찰비전연구팀			사 무 책 임	관 김 기 이 승	환 원

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및 교육 효과성 분석

- 인 쇄 · 발 행 : 2007년 11월
- 발 행 처 : 법무부 보호국 보호관찰과 전화 (031)381-8640
- 발 행 처 : 법무부 보호국 보호관찰과 팩스 (031)381-8634
- 인 쇄 처 : (주)문중인쇄 전화 (02) 503-7154~5
- 주 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법무부 평촌 제2별관
- 홈 페이지 : www.moj.go.kr, www.probation.go.kr

〈비매품〉



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자 특성 및 교육 효과성 분석